20일 Market Index
코스피 5552.74 (-215.27)
코스닥 781.97 (-26.92)
금리(국고채 3년) 3.840 (-0.037)
환율(원-달러) 1326.80 (-3.50)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하나금융그룹

AI거품 공포, 실적잔치에 찬물… 반도체주 추락

삼전닉스 3분기 역대급 실적 찍고도
주가 연일 하락, 고점대비 절반 '뚝'
AI 투자 대비 수익성에 의구심
中 기술 추격, 美 CPI 상승 등 영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끝모를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코스피는 5550선까지 밀려났다. 인공지능(AI) 투자 버블(거품)에 대한 경보음이 커진 영향이다.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인공지능(AI) 관련 부채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S&P)와 "AI 거품 붕괴의 예행연습(dress rehearsal)"이란 진단(파이낸셜타임스·FT)까지 나왔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2.98% 내린 21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52주 최고가인 38만원보다는 44.34% 낮았다. SK하이닉스는 4.23% 내린 122만3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최고가 300만2000원 대비 59.43% 하락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이라는 전례 없는 호실적을 발표하며 매수세가 몰렸지만, 최근 주가는 반등보다 하락에 무게가 쏠리며 외국인 차익실현 매물이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기대도 크다. 증권사 전망치 평균은 3분기 매출 98조5258억원, 영업이익 77조1682억원이다. 전망대로라면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하게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끌어내린 것은 AI 투자와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다. AI가 미래 산업 지형을 흔들 '게임 체인저'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아니다. AI 산업이 현재 투자 규모와 차입 부담을 정당화할 만큼 빠르게,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특히 기름을 부은 곳은 미국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다. 이 회사의 회사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빚에 기댄 AI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터져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의 10조 달러 규모 AI 인프라 붐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곳곳에서 짓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이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데이터센터는 AI 산업을 지탱하는 주요 인프라다.

신용리스크도 불거졌다. 마크 하비브 S&P 글로벌의 디지털 인프라 글로벌 총괄은 이날 런던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 하이퍼스케일러의 이른바 '상호 연결된 금융 구조'도 지적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부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이재명 대통령, 3기 신도시 현장 시찰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3기 신도시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주택공급 속도 높여야 실제 착공·입주 중요"

李 대통령, 인천 계양지구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인천 계양지구(계양신도시)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예정자 및 도시·교통 전문가들과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기간을 당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택지 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올려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 공급의 기준은 '입주'인만큼 입주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양신도시는 오는 12월부터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현장 일정 사실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신도시 조성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계양부천 사업본부장으로부터 '인천계양 부천대장 신도시 입지요건'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연말 입주예정 세대 규모를 확인한 후 "원형지 분양이 공급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으니 근본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계양신도시 12월부터 입주 시작

"주택공급 목표 차질없이 달성을"

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 인허가가 감소함에 따라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면서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지금이 비상시기인만큼 공급기간을 당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LH에 "공공택지 개발의 전 과정에서 사업 추진 속도를 최대한 높이고 주택공급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현장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공급의 기준은 '입주'라면서 "이미 발표된 공급 대책들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주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기 신도시가 예측가능한 공급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LH인력 충원에 대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함께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 /서예진 기자 syj@

체중 줄이고, 만성 대사질환·성인병 뿌리 뽑는다

불로장생의 꿈

〈下〉 비만치료제의 진화

일라이릴리, 비만약에 건선약 병용
피부증상 개선, 면역·대사 개선 효과
한미약품, 체중감량·관리 전주기 치료
비만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 개발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한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 치료제는 다이어트 약에서 만성 대사질환과 성인병을 뿌리 뽑는 '통합 대사 치료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 제약사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비만과 당뇨, 심혈관 질환, 자가면역질환 등 서로 연결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며 적응증 추가에 총력을 기울인다. 〈관련기사 L8면〉

20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최근 비만치료제 '젭바운드(성분명: 티르제파타이드)'를 자사의 건선 치료제 '탈츠(성분명: 익세키주맙)'와 병용 투여하는 임상 3b상(TOGETHER-PsO) 데이터를 공개해 비만과 면역 및 대사 질환 모두에서 약물 경쟁력을 높였다.



과체중, 건선 등 대사 및 면역 질환에서도 비만치료제 계열 약물들이 주목받고 있다.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해당 임상에서 중증 건선과 비만을 함께 앓는 성인 환자에게 두 약물을 함께 투여한 결과, 탈츠 단독 투여군 대비 피부 증상 개선은 물론 면역 및 대사 관련 바이오마커에서 한층 광범위한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일라이릴리의 마크 제노베스 면역학 개발 부사장은 "건선과 비만을 동시에 겪는 환자들은 이중 부담을 안고 있지만 그동안 별개의 질환으로 치료받아 왔다"며 "이번 연구는 면역과 대사 생물학 간의 의미 있는 연관성을 보여주며 비만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건선 치료 접근법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역시 체중 감량을 넘어 대사질환 전반으로 약물 활용 범위를 넓히는 전략을 적극 펼치고 있다.

한미약품은 체중 감량부터 관리·예방까지 아우르는 전주기적 치료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우선 국내 첫 토종 GLP-1 비만 신약으로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자체 개발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국인 대상 임상 3상에서 우수한 체중 감량 효과와 뛰어난 안전성 프로파일을 입증했다. 또 심혈관 및 신장 보호 효능까지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약 4000여 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글로벌 심혈관계 안정성 연구(CVOT)에서 주요 심혈관계 및 신장 질환 사건 발생 위험도를 획기적으로 낮춰 혁신 가능성을 제시했다.

실제로 올해 국내에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당뇨 임상 3상을 본격화했다. 기존 당뇨 치료제인 메트포르민 및 SGLT-2 저해제 요법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 환자에게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혈당 조절 능력을 평가한다.

아울러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에페거글루카곤의 병용요법 등을 전임상 단계에서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확보하고 있다. 에페거글루카곤은 선천성 고인슐린혈증을 치료하는 신약 후보물질이다. 주 1회 투여하는 자가 주사 가능한 글루카곤 유도체로 개발되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의 동아에스티는 다중작용 기전을 무기로 대사질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고용량 임상, 병용요법 연구 등에서 성과를 내며 비만-대사질환 치료 패러다임 확장에 힘을 보탠다. 〈3면에 계속〉

/이청하 기자 mlee236@

메트로경제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오늘 오후 2시~5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메트로 한줄뉴스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수사"
▲이 대통령 "주택 공급 전격전 펼쳐달라…택지 조성·인허가·착공기간 최대한 단축"
▲정부, '국가정상화' 2차 과제 추진…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등 비리 척결
▲김정은 사망설 확산에…북한매체, 건재 과시 사진 공개



▲민간임대 관리비도 신고 의무화…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서울 역삼동 빌딩 두 곳 연속 화재…심정지 1명 호흡 회복 /사진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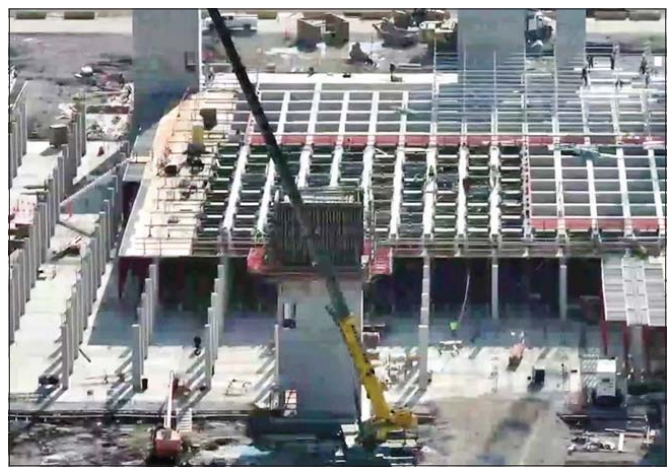
반도체업계 美 생산 경쟁… 삼성·SK, 공장건설 등 투자 속도

삼성전자 테일러 2공장 착공 예정
텍사스 지역 370억달러 이상 투자

SK하이닉스 첨단 패키징 공장 착공
기술 연구개발·전문인력 확보 추진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 현장.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두 번째 반도체 공장 건설을 앞둔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미국 투자 확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AI생태계 투자가 급물살을 타면서 현지 반도체 생산기반 구축 경쟁 또한 가열되는 모습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만 IT 전문매체 디지타임스는 삼성전자가 오는 11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2공장 착공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설 공장은 기존 1공장보다 약 1.5배 큰 270만 제곱피트(약 25만 ㎡)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앞서 테일러 2공장 건설 계획을 지난 7월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발표하며 2030년 양산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테일러 1공장도 연내 가동을 목표로 생산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제조장비 반입과 공정 검증을 거쳐 내년부터 2나노 반도체 양산에 나설 계획이다. 2025년 7월에는 테슬라와 약 165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인 AI6가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과 기존 오스틴 사업장 등을 포함해 미국 텍사스 지역에 총 370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7억4500만달러의 직접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지 인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 오스틴 반도체는 지난 15일 지역사회 지원과 반도체 인재 양성 등에 총 2284만달러를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1064만달러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대학 및 교육기관과 연계한 인력 양성에 사용된다.

SK하이닉스 또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거점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8월 27일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서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미국에 건설하는 첫 생산시설로, 총 40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인디애나 공장은 국내에서 생산한 D램을 적층·패키징하고 성능을 검사하는 후공정 시설이다. SK하이닉스는 2028년 10월 클린룸을 개소하고 2029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양산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 퍼듀대학교와 협력해 차세대 패키징 기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확보도 추진한다.

미국 정부도 현지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SK하이닉스 인디애나 공장에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지원금과 5억달러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공장 가동 이후에는 약 1000명 규모의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경쟁사인 대만 TSMC도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에 나서고 있다. TSMC는 애리조나주에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텍사스주에서도 신규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C.C. 웨이 TSMC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5일 3분기 실적발표에서 텍사스 지역의 부지 확보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현지 생산시설 확대는 고객사와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인건비와 공장 운영비용은 부담 요인"이라며 "국내 기업들도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 변화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최진식 "국회가 기업 지속성장 위해 법·제도 지원해주시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중견기업계, 조정식 국회의장 예방
조 의장, 중견기업법 개정 등 언급


(왼쪽부터)최명배 와이씨 회장, 조시영 대창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조정식 국회의장,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김현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련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법·제도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20일 중견련에 따르면 전날 최 회장은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조시영 대창 회장, 최명배 와이씨 회장, 김현철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과 함께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최 회장은 9월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조 의장이 제시한 대로 '성장의 온기를 골고루' 확산하려면 전제조건으로서 "충분한 성장이 필수"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선도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선 실질적인 체감의 계기가 중요하다"며 "2008년 이후 GDP가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여전히 제자리인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함으로써 더 나은 삶의 전망과 노동의 가치를 제고하고, 효과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방안으로서 공익법인 주식 취득·보유 기준을 확대하는 등 성장 효능감을 높일 다양한 방안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이에 대해 "중견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이자 혁신성장의 주역으로서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기업 승계, 인재 확보, 근로 시간 등 주요 현안에 관해 기업과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중견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중견기업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1면 'AI거품 공포… '서 계속

아시아 증시 '된서리'
코스피 5500선 후퇴

시장을 둘러싼 다른 악재도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예상치를 웃돈 데 이어 프랑스에선 전국적으로 벌어진 대규모 시위가 폭력 사태로 확산한 가운데 재정 불안이 커지면서 국채 10년물 금리가 0.12%포인트 오른 4.9%까지 치솟았다.

시장 우려에도 노무라증권은 이날 AI 기업의 매출 둔화와 자금조달 우려에도 메모리 수요가 적어도 2028년까지 공급보다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주목할 종목'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선정하고 두 회사에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

AI발 반도체 쇼크에 이날 코스피는 3.73% 하락한 5552.74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이날도 코스피시장에서 1839억원을 순매도했다. 일본 닛케이225(-1.30%)를 비롯해 대만·중국 등 아시아 증시도 된서리를 맞았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기술주에서 발을 빼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까지 5거래일간 기술주 비중을 역대급으로 빠르게 줄였다. 헤지펀드 포트폴리오에서 기술주가 차지하는 비중도 23.5%로 줄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코스피가 215.27포인트(3.73%) 하락한 5552.74로 마감한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美 엑셀리스, 평택 오성산단 '아시아 오퍼레이션 센터' 증설

이온주입 장비 생산능력 대폭 확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핵심 허브 육성

미국의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엑셀리스 테크놀로지(Axcelis Technologies)가 국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경기도 평택에 아태지역 제조 거점 증설에 본격 착수했다.

2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엑셀리스는 이날 경기도 평택시 오성 산업단지 부지에서 '엑셀리스 아시아 오퍼레이션 센터(AAOC)' 증설 착공식을 진행했다.

AAOC는 엑셀리스의 유일한 해외 제조 거점으로, 이번 증설을 통해 반도체 핵심 공정인 이온주입 장비의 연간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하게 된다. 이온주입 장비는 반도체 내부에 전기가 흐르는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 초미세 입자를 주입하는 장비다. 이로써 국내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엑셀리스는 지난 2021년 설립된 AAOC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수요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 장비를 공급해왔다. 이번 증설은 지난 9월 G20 혁신장관회의 계기 미국에서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투자신고식의 후속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엑셀리스는 AAOC를 기존 생산거점 중심에서 향후 R&D, 시제품 생산, 기술교육 등 기능을 포괄하는 종합 거점으로 구축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허브로 키워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 기업의 장비 수요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소·부·장 기업과의 협력 확대 및 기술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엑셀리스 코리아는 최근 4년간 국내 협력사 수를 8개에서 35개로 확대하며 약 250명의 직간접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1700억 원 규모의 국내 조달 실적을 내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고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착공식에는 러셀 로(Russell Low) 엑셀리스 테크놀로지 대표, 박영근 엑셀리스코리아 대표와 산업통상부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최원용 평택시장 등 정부 및 지자체 인사, 국내 수요·협력 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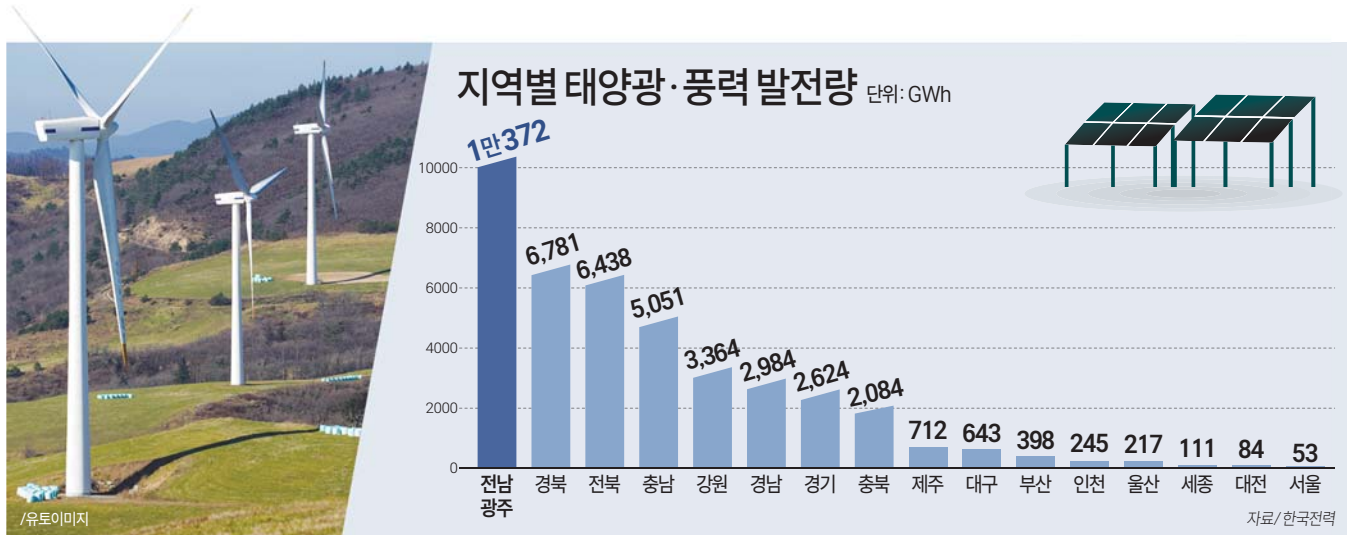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축사를 통해 "엑셀리스의 이번 투자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뜻깊한 투자"라며 "AAOC의 증설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엑셀리스의 사업도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도 경기도, 평택시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애로를 살피고,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반도체 산업 키울 '지산지소'… 전력·용수 안정공급 '열쇠'

메가특구법 성공의 조건

❸ 핵심 인프라 구축

서남권 클러스터 전력 6.3GW 필요
원전 기반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지역 생산·소비 체계 도입 추진
공업용수 하루 65만톤 확보 과제
댐·하수 재이용으로 수원 다변화
안정적 공급 위한 규제 개선 시급



정부·여당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와 수자원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른바 '지산지소' 정책을 메가특구에서 구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같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점차 늘려가고 다양한 수원지에서 대규모의 공업용수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제를 개선해 산업을 진흥할 패키지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도기 거쳐 무탄소 발전 시대 준비해야

반도체 공장은 한순간의 정전에도 웨이퍼 수율에 심각한 지장을 받기 때문에 대규모의 고품질 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생산시설) 4기를 조성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엔 총 6.3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하다. 이는 대형 원전 약 4~5기 분량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AI 시대 전기 수요는 전기차 확대, 산업과 건물의 전기화까지 감안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감안해 태양광과 풍력,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그리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전환과 같은 모든 에너지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구축 초반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삼고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도 연계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의 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무탄소 전력 생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광주·전남은 전국 최고의 태양광·풍력 자원 등의 강점을 보유한 지역이기도 한다. 2024년 기준, 광주·전남의 태양광 발전량은 7.86TWh(테라와트시)로 전국 1위다. 해상 풍력의 잠재력은 12.4GW로 전국의 37.3%에 이른다. 전력 자립도는 2022년 전남 기준 171%다.

전남연구원은 지난 7월 발표한 이슈리포트에서 "글로벌 고객사의 무탄소 전력 요구가 반도체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호남에 입지한 기업은 무탄소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EU(유럽연합)는 탄소국경제도를 지난 202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업종으로 제도가 확장될 경우 화석기반 전력 기반 구조를 유지하는 반도체 기업은 높은 탄소 비용을 지불하거나 수출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오히려 호남 지역은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전력망이 수용할 수 있는 전력보다 많이 생산되는 계통포화를 겪어 발전기의 출력을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멈추는 '출력제어'가 빈발하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 따르면 친환경에너지 공급을 위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도 도입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친환경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해 지역에서 공급하는 '지산지소'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분산 수자원과 하수 재이용으로 안정 용수 공급

반도체 웨이퍼 표면의 미세한 불순물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다량의 공업 용수가 필요하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엔 하루 65만톤의 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광역시나 충청남도 전체 도민이 하루에 쓰는 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복댐 30만톤(t), 주암댐·장흥댐 15만t, 보성강댐 10만t, 나주댐 10만t 등 지역의 수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호남권 등 반도체 클러스터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전남연구원은 "정부 계획에 따르면 용수 공급처가 분산돼 있기 때문에 용수 공급망 구축에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적기 용수 공급을 위해 노선별 개별 방식이 아닌 통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최적 공급 노선, 기반 시설(가압장, 취수장 등) 설치 등도 조기 확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안정적으로 공업용수를 확보하고 사업 부지 인근에 위치한 광주제1하수처리장의 하수재이용수를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하수는 가뭄 등에도 가장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발생하는 수자원이지만, 전남광주에는 공급처 부재, 경제성 미확보, 인식 부족 등으로 공업용수 재활용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다만, 농업이 발달한 호남의 지역 특성상 첨단 산업의 공업용수 수요 증가는 기존 생활, 농업 용수와 조정 문제 유역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아 용수확보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되나… 정부도 '속도조절' 기류

재경부, 5대 거래소 비공개 간담회
업계 "과세 강행 땐 산업 경쟁력 악화"
해외 거래정보 확보·과세 기반 미흡
금투세 폐지에 조세 형평성 논란도
정치권서 추가 유예·폐지 요구 확산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 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당초 가상자산과 함께 과세가 논의됐던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해외 거래정보 확보의 어려움, 과세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법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미 세 차례 유예됐던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날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체협의회(DAXA·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상자산 과세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비공개 진행된 회의는 내년 초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앞서 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안은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매매차익 및 운용수익에 대해 22%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당초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 근거를 마련했으나, 과세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 체계 마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시행을 세 차례 유예했다.

◆ 업계, 과세 '시기상조' 지적

업계는 정부에 가상자산 소득 관련 과세가 시기상조라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DAXA는 지난 9월에도 5대 거래소 및 가상자산사업자(VASP) 27곳을 대표해 '가상자산소득 과세 관련 공식 의견서'를 통해 "관련 인프라와 정보교환체계가 실질적으로 검증되고, 선행 규제 개편이 안정화된 이후로 시행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건의한 바 있다.

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투자자의 해외 이탈이다. 정부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해외 거래소는 국내거래소와 달리 거래 내역 제출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가 간 법적·행정적 공조에도 한계가 명확해, 과세 부담을 피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명확하지 않은 과세 기준도 쟁점이다. 현행 과세안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일률적으로 22%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법안 발의 당시에는 관련 소득이 매매차익에 집중됐지만, 최근에는 ▲매매차익 ▲대여 ▲스테이킹 ▲에어드랍 등 관련 소득도 다변화했다. 과세 시점, 소득 성격, 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 정치권, '추가 유예' 한 목소리

업계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우려 속에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 과세를 늦추거나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뚜렷하다.

야당에서는 지난 3월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가상자산과 함께 과세가 논의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만큼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에도 '가상자산 과세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과세 시기를 늦추기 위한 입법 시도도 본격화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년 늦추는 법안을 지난 8월 말 발의했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달 과세를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안 폐지 요구를 재확인했다.

여당 내에서도 가상자산 과세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이달 15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년 늦추는 법안을 발의했고,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 기본법 통과 이후로 미뤄야 한다. 과세를 위해선 공정하게 걷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하는데, 지금은 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당국도 '속도조절' 분위기

업계에서는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방안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취임을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던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기보다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내년 초 과세 시행을 준비했던 과세당국도 유보적인 견해를 확인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각국 국세청장이 참여하는) 국세청장 회의에서도 향후 어떤 방식으로 가상자산 과세자료 확보에 공조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은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전 세계 국세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로, 해결을 위해선 시간이 다소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1면 '체중 줄이고… '서 계속

GLP-1, 항노화 연구 확대
건강수명 연장 가능성 주목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인 GLP-1/글루카곤 이중작용제 'DA-1726'의 경우, 고용량 임상 1상에서 투여 54일 차에 평균 9.1%의 체중 감량과 허리둘레 9.8cm 감소 효과를 보였다.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치료제 'DA-1241'은 기존 MASH 치료제 레스메티롬 및 표준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과의 병용 전임상 연구에서 유의미한 간 보호, 체중 감량, 혈당 조절 효과를 나타냈다.

이처럼 GLP-1 계열 약물이 포도당 대사, 식욕 억제뿐만 아니라 신경내분비 및 염증 조절에 광범위하게 관여함에 따라 제약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은 질병 치료에서 항노화 및 건강 수명 연장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한국바이오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노화는 심혈관질환, 뇌졸중, 관절염, 알츠하이머 등 다양한 동반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GLP-1 약물처럼 공통 생물학적 기전을 표적으로 하는 약물은 여러 만성질환의 발병률을 동시에 낮추는 예방 중심 치료 전략으로 진화할 잠재력이 크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비만과 당뇨병 환자에서 확인된 여러 노화 관련 만성질환 개선 효과를 바탕으로 노화 연구 분야에서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 기업 또한 장기 임상 데이터를 구체화해 예방 중심의 차세대 치료 전략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탄소감축 넘어 제조업 초격차 도모… 실행력이 성패 가른다

대체불가 K-에너지

❸ 한국형 녹색대전환

인공지능(AI)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에너지가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들이 단순히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를 넘어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생산비용과 수출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지가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시대다.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이 탄소중립 대응을 넘어 국내 제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K-GX 전략을 발표하고 2026~2035년 10년간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총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민간도 10대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통해 22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생산 공정을 바꾸는 동시에 청정에너지 기술과 핵심 공급망을 확보해 글로벌 녹색시장을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을 뒤따르던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시장의 설계자,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들은 차세대 기술을 통한 산업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화그룹의 핵심 에너지 계열사인 한화큐셀은 페로브스카이트와 실리콘을 결합한 탠덤 태양전지 기술 국산화에 나선다. 기존 태양전지보다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정부는 2028년 세계 최초 상용화와 양산을 목표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강한 태양광 시장에서 고효율 기술과 핵심 소재·부품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다.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이끈다.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하는 과정에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환원제철은 탄소 배출을 줄일 핵심 기술로 꼽힌다. 정부는 2030년까지 30만t급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 개발뿐 아니라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와 전력을 확보하고 저탄소 철강의 수요처를 넓혀야 실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주거공간의 난방 전기화를 추진한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고효율 히트펌프로 전환하고 냉난방·급탕·에너지 관리 기술을 연계해 주거공간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식이다. 양사는 국내 보급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술과 설치·유지보수 생태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히트펌프를 새로운 녹색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녹색전환은 자동차 산업으로도 확장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전동화와 수소 생태계 구축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녹색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에 125조2000억원을 투자해 미래 모빌리티와 전기차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과 수소 상용차 개발에도 힘을 싣는다. 수소 생산부터 공급·저장·활용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구축해 수소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가 완성차 생산에 그치지 않고 배터리와 충전 인프라, 수소 공급망 등 연관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K-GX의 산업적 파급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를 통해 국내 부품업계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곧바로 제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차세대 기술의 상용화 시점과 설비투자 부담, 청정에너지 조달 비용, 해외 경쟁사와의 가격 격차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중소·중견 협력사까지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과 기술 지원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K-GX가 연구개발에서 양산, 수출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탄소 감축이 비용 부담을 넘어 한국 제조업의 초격차 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

결국 K-GX의 성패는 투자 규모보다 실행력에 달려 있다. 연구개발 단계의 기술을 실제 생산라인에 적용하고, 국산 기술의 양산과 판로 확보까지 연결해야 탄소 감축이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을 규제 대응에 머물게 할지, 한국 제조업의 초격차를 만드는 기회로 바꿀지는 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기업의 투자 의지에 달려 있다.

최근 최태원 회장은 K-GX에 대해 "AX와 GX는 함께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국가의 쌍둥이 전략으로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과 탄소 감축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AI가 GX의 속도를 높이고 GX가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기업들이 탄소중립 투자를 망설인 것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술과 시장, 정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십 년짜리 투자 위험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투자 지원과 인프라 확충, 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7일 서울 시내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화큐셀이 애리조나주에 건설하는 '아틀라스 에너지 파크'. /한화큐셀

정부, 'K-GX 전략'… 1000조 투입
한화, 탠덤 태양전지 기술 국산화
포스코홀딩스, 철강산업 탈탄소 전환
삼성·LG전자, 주거공간 난방 전기화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전기차 확대
정책 일관성·기업 투자 의지 '관건'

K-배터리 소재사, 해외생산·원료확보 속도

에코프로비엠, 유상증자로 재원 마련
인니·헝가리 공장에 7650억 투입
포스코퓨처엠, LFP 수주 확대

이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해외 생산시설과 원료 공급망 투자를 위해 자금 조달을 이어가고 있다. 현지 배터리 제조사에 소재를 공급할 생산 거점을 확충하고 광물부터 양극재까지 공급망을 수직계열화해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 대응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차전지 소재 업체들은 유상증자와 정책금융 등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해외 생산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제련소 투자와 원료 내재화를 통해 조달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은 유상증자로 조달할 약 8861억원 가운데 7650억원을 인도네시아 BNSI 니켈 제련소에, 1211억원을 헝가리 공장에 투입한다. 니켈 원료 확보와 유럽 현지 생산을 연계해 공급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다.

BNSI 제련소는 연간 9만톤(t) 규모의 니켈 생산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헝가리 공장에서는 기존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라인을 니켈·코발트·망간(NCM) 제품도 생산할 수 있도록 개조하고 있다. 공급 제품을 넓혀 2027년 4분기부터 유럽 프리미엄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포스코퓨처엠도 자본 확충과 차입금 만기 대응을 병행하면서 양·음극재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유상증자로 1조1070억원을 조달한 데 이어 올해 초 공모 회사채로 4500억원을 확보했다. 포스코그룹의 리튬·흑연 등 원료 공급망을 바탕으로 소재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삼원계 중심의 제품군을 리튬인산철(LFP) 양극재로 넓히고 있다.

LFP 사업에서는 지난 9월 SK온과 약 1조1000억원, 이달 삼성SDI와 약 6조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맞춰 포항 공장의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라인 일부를 LFP용으로 전환했으며 올해 말 양산 공급을 앞두고 있다.

초기 공급에는 기존 설비를 활용하고 이후 전용 공장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한다. 포스코퓨처엠과 피노, CNGR의 합작사인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가 포항에 건설하는 LFP 공장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생산능력을 연산 최대 5만톤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음극재에서도 약 3570억원 규모의 베트남 인조흑연 공장 신설과 새만금 구형흑연 가공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엘앤에프는 LFP 생산시설 확충에 국민성장펀드의 장기·저리대출을 활용한다. 자회사 엘앤에프플러스는 지난 5월 말 22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첨단전략산업기금 1700억원을 포함한 12년 만기 대출로, 자금 용도는 전액 LFP 양극재 공장 시설투자다.

시설투자와 함께 고객사 공급 물량도 확보했다. 지난 3월 삼성SDI와 약 1조6000억원, 9월 SK온과 약 1600억원 규모의 LFP 양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엘앤에프는 고객사 공급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 공장의 생산능력을 2027년 상반기까지 연산 6만톤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재 업체들의 자금 확보는 크게 현지 공장 투자와 공급망 수직계열화를 위한 것"이라며 "유럽이나 미국에서 배터리 제조사에 소재를 공급하려면 현지 생산이 필요하고, 중국과 경쟁하려면 전구체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인 광물까지 공급망을 확보해야 해 투자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에코프로비엠 헝가리 공장. /에코프로

신세계, 중앙일보 인수 컨소시엄 합류

컨소시엄 내 지분율, 다우키움 50%
CJ 30%, 신세계 20% 방안 거론
인수가 5000억 예상… 범삼성가 '맞손'

신세계그룹의 백화점 계열사인 ㈜신세계가 중앙일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다우키움·CJ그룹 컨소시엄에 합류했다. CJ에 이어 신세계까지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범삼성가 기업들이 중앙일보 인수를 위해 손을 잡는 구도가 형성됐다.

20일 ㈜신세계는 CJ그룹과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해 중앙일보 신주 인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컨소시엄 내 지분율은 다우키움 50%, CJ 30%, 신세계 20% 안팎으로 나누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우키움이 최대주주를 맡고 CJ와 신세계가 각각 2대, 3대 주주가 되는 구조다.

신세계는 이날 컨소시엄 참여 사실을 인정하며 "당사는 중앙일보의 고유한 정체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당사의 프리미엄 문화플랫폼·라이프스타일 콘텐츠 등과 연계해 양사가 시너지를 창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다우키움·CJ 컨소시엄은 지난 19일 중앙일보 인수 본입찰에서 오리온, 글로벌세아 등 경쟁 업체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다우키움은 당초 단독으로 인수전에 참여했으나 본입찰 직전 CJ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가는 5000억원 안팎으로 거론되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중앙일보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번 인수전은 범삼성가 기업들이 중앙일보를 중심으로 다시 모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앙일보는 1965년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설립했다. 1999년 삼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이후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처남인 홍석현 회장 일가가 이끌어왔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이병철 창업주의 친손자이며,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외손녀다. CJ그룹은 이미 계열사 CJ올리브네트웍스를 통해 중앙일보 지분 9.24%를 보유하고 있다.

㈜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해 신세계디에프, 신세계인터내셔날 등을 거느린 정유경 회장 측 계열사다. 정용진 회장이 이끄는 이마트 중심의 계열사들과는 독립적인 경영 체제를 갖추고 있다.

한편 중앙일보는 중앙그룹의 경영난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지난 6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신청했으며, 이후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권 매각을 추진해왔다.

/김서현 기자 seoh@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신세계그룹

AX의 좋은 쓰임

공무원에게는
업무의 제약을 덜고

주민에게는
공공행정의 공백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더 넓게,
필요한 순간에 더 빈틈없이

필요에 답하는 기술로
더 잘 닿는 공공행정.
AX의 좋은 쓰임입니다.

5G 업무망
사무실 밖에서도 업무 환경은 그대로
5G 인프라와 전용회선 기반 보안망으로
안전하게 사내 업무 환경에 연결됩니다

AI 당직봇
야간·휴일 민원 전화도, AI가 먼저 응답
지자체 특화 AI봇이 야간·휴일 민원 전화를 1차 응대해
업무부담은 줄어들고, 민원대응은 더 빈틈없어집니다

KT AX는 이미 많은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QR을 통해
지자체에 필요한
AX Solution을 만나보세요

AI라는 세상을 모두에게
AX Platform Company kt

조국당 "조희대 탄핵 함께하자"… 더불어민주당 결단 압박

민주당, 원내 의견 수렴 후 결정
조국혁신당, 공동대응TF 제안
오늘 양당 원내대표 논의 예정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여부가 국정감사 이후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한 원내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자체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며 민주당에 공동대응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김민석 대표는 취임 초반 청와대와 대법관 후보자 조율이 안되자 관례를 깨고 후보자를 서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 왔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까지 시사하며 원내 의견 수렴을 통해 탄핵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로 했다.

김 대표의 발언 수위도 시간을 거치며 점차 높아졌다. 김 대표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도리(10월7일)', '자진 사퇴의 안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10월14일)', '이미 탄핵의 티읕(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10월16일)'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전날(19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20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을 하자고 민주·진보 정당들에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침해 ▲대법관 후보자 제청 의무 미이행으로 헌법 위반 ▲2026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선서 및 증언 거부로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배 등을 사유로 적시했다.

신장식 당 대표는 "민주진보 정당들에 제안한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공동 태스크포스팀(TF)을 만들자"며 "조국혁신당은 판사, 헌법재판연구관, 법제처장을 지낸, 바로 제 곁에 서 계신 김형연 의원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담당 의원으로 지정한다"고 제안했다.

신 대표는 "5개 정당 공동 의원총회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원내대표 간 협의도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책임 있게 결단하면 실행할 수 있는 일이다. 왜 국민께서 민주당에 국회 과반인 161석을 주셨는지 깊이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김건희 씨는 10월 31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며 "김 씨가 풀려나 윤어게인 세력의 구심점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 이전에 원 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탄핵 소추를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관련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조 대법원장에 탄핵소추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김승원·용혜인 등 장관 후보자의 낙마, 증시·부동산 불안정, 국가직 소방관 관련 설화로 민주당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나섰다가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와 경쟁 구도를 벌였던 정청래 전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최고위원도 뜻을 함께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범여권이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 등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도착증이 다시 도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잘하는 것은 딱 2개밖에 없다. 하나는 탄핵이고, 하나는 갑질"이라고 표현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주당, 초광역특구법 '투 트랙' 발의

노동특례 유무 법안 등 병합 심사
320개 규제특례, 40개 정책지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노동 특례를 포함한 메가특구 내 첨단산업 투자를 지원하는 이른바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 등 특례가 도입된 이번 법안은 노동 특례 포함, 미포함 법안 등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완성시킬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역점 사업인 반도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 하기 위해 메가특구특별법을 추진했으나 초광역특구법으로 명칭을 바꿔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의 중심지가 될 초광역특구를 지정하고 첨단 기업의 지방 초광역특구 투자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법안은 320여 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40여 개 정책지원 패키지를 담아, 기업과 지방정부가 메뉴판처럼 법안 내 규제 특례를 선택하게 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인프라, 정주여건 개선, 인재 활용, 연구개발(R&D) 등 노동시간 특례, 전략산업별 특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법안에 포함된 근로소득 상위 3% 고소득 전문직 및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적용 면제는 노동계의 반발이 있어, 노동특례가 포함되지 않은 안(최기상 민주당 의원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노사정의 특별법 내 노동특례 도입 여부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만큼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지방이 스스로 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지방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재의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李 대통령, 안전 예산·인력 확충 주문

강력범죄·재난 대응 재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소방과 경찰, 재해 예방 등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기능을 전면 재점검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 잇따른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대해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라 책임성과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고(故) 김진석 소방위를 추모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김 소방위를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민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국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화재와 교통사고, 자연재해뿐 아니라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경제·사회적 고립에 따른 자살 등을 언급하며 "국가는 이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산업재해 사망자, 자살자, 여름철 풍수해 사망자 등이 크게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와 인프라를 세심하게 정비해 나가야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소방, 경찰, 재난재해 예방, 보건의료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 정비, 보강이 필요하다"며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점검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다행히 대형 사고들이 없기는 한데, 혹여 또 모르기 때문에 군중 밀집시설이나 교량 같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번 대대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다"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데 국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치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앞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경찰의 책임이 막중해졌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70여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며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치안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이러한 반사회적 강력 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킹과 불법 사금융, 토착 비리,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與野, 해군 대비 태세·해병대 준4군 체제 놓고 이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20일 열린 해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북 군사 대비 태세와 해병대 '준(準)4군 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간 경제 격차를 언급하며 우리 해군에 자신감을 주문했고, 국민의힘은 해병대 조직 확대보다 실질적인 전투력 강화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유류 확보와 전쟁 지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 군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에 따른 대북 정제유 공급 제한을 거론하며 "북한 전체에 대한 정제유 공급 제한이 1년간 50만 배럴"이라며 "우리나라가 하루 쓰는 정제유가 약 260만 배럴인데, 우리나라가 5시간 쓸 정도의 기름을 (북한은) 1년 동안 사용하라고 한 사상 유례가 없는 가혹한 제재"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북한은 해군을 가동할 수 있는 기름이 없다"며 "북한 해군이 합동기동훈련을 1년에 몇 번이나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은 "정확한 건 표현할 수 없지만 북한 해군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결론은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이라며 "전쟁이라는 게 1년이 아니라 2, 3, 4년이 간다"며 "북한 국내총생산(GDP)은 우리의 58분의 1이다. 쓰는 기름양도 우리의 2%도 안 되고 철강 생산도 2%, 전력 생산도 4%다. 이런 나라를 가지고 미군이 없으면 무너질 것처럼 자신 없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질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해병대가 이미 상당한 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준4군 체제 개편의 실효성을 따졌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해병대가 독립적이지 않다고 느끼지만 90개 중 81개의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일부 군정 권한과 1·2사단 작전통제권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만으로 준4군 체제가 실현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금융의 모든 순간

헤아림

아 플 까 봐 다 칠 까 봐 걱 정 말 아 요~ 병 원 비 도 보 장~ 사 고 엔 안 심

모 든 걱 정 든 든 하 게 해 결 해 주 는 **농 협 손 해 보 험** **만 나 보 세 요**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보험

건강부터 안전, 생활까지 걱정 없이
인생에 필요한 모든 보험을 만나보세요

모두를 웃게하는 긍정보험
NH농협손해보험

SONG 듣기

NH농협손해보험

4% 정기예금 수신전… 대출금리 인상 시그널

은행채 금리 상승에 자금조달 나서
신한 4% '슈퍼SOL 웰컴 정기예금'
NH농협은행 3.9% 특판예금 출시
은행권, 자금확보·비용 관리 과제



Chat GPT가 생성한 이미지. 은행 예금상품의 금리가 오르고 있다.

은행권에서 연 4%대 정기예금 상품이 잇달아 등장하면서 수신 경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은행채 금리 상승과 은행들의 자금 확보 수요가 맞물리면서 예금금리를 끌어 올리는 모습이다. 예금자들의 이자수익 확대가 기대되는 반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 증가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고 연 4.0% 금리를 제공하는 '슈퍼SOL 웰컴 정기예금'을 5000억원 한도로 판매하고 있다. NH농협은행도 최고 연 3.9% 금리의 특판예금을 5000억원 한도로 출시했다. BNK경남은행은 'The든든예금(시즌2)'에 최고 연 4.1% 금리를 적용하는 등 지방은행에서도 4% 안팎의 고금리 상품이 등장했다.

예금금리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는 시장 조달금리 상승이 꼽힌다. 지난달 29일 기준 5대 은행의 1년 만기 은행채 금리는 연 4.17%까지 올랐다.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이 커지는 만큼 은행들이 예금 유치를 위해 수신금리를 높일 유인도 커진다.

다만 고금리 상품 출시가 정기예금 잔액의 큰 폭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원화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 28일 기준 1005조6118억원으로, 8월 말보다 9474억원 증가했다. 지난 7월 35조5401억원, 8월 20조2920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모습이다.

은행들은 대출과 기업금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예금의 만기 도래에 따른 자금 이탈에 대비하기 위해 수신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은행별 자금조달 여건과 유동성 관리 필요성이 다른 만큼 특판예금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자금 유치 전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수신금리 상승이 대출금리와 은행 수익성에 미칠 영향이다. 예금금리 인상으로 조달비용이 늘어나면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통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반영될 수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8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연 3.18%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잔액 기준 코픽스는 연 3.05%로 전월보다 0.05%포인트(p),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연 2.71%로 0.06%p 상승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자금 확보와 조달비용 관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수신금리 상승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 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높아진 조달비용을 대출금리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4%대 예금의 등장은 예금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은행권에는 자금 확보와 조달비용 관리라는 과제가 동시에 남았다"며 "수신 경쟁이 대출금리와 은행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향후 금리 흐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서울시, 모아주택 20여곳 조합설립 비용 지원

구역별 최대 1억, 전문업체 투입
오늘부터 연말까지 수시 신청접수

서울시가 모아주택 사업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이 겪는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합설립 비용을 지원한다. 구역별 최대 1억원을 투입해 전문업체의 조합설립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올해 20곳 안팎을 선정할 계획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처음으로 '2026년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해 온 조합설립 공공지원 제도를 모아주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지원자인 자치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해 조합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지원 업무는 토지등소유자 현황 파악과 조합설립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지원 등이다. 조합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 개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조합설립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구역별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조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모아타운 내 20개 내외 구역이다. 지원 대상 비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와 주민협의체·선거관리위원회 수당 등 조합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다.

신청 대상은 모아타운 내에서 새롭게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사업시행구역이다. 토지등소유자가 100인 이상이면서 조합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이어야 한다.

공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동의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구청장이 공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모아타운 추진구역은 공공지원 신청서와 주민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자치구 모아타운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규 모아타운 추진구역은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 신청 시 공공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1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받는다. 서울시는 자치구 사전검토를 거쳐 접수된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 동의율과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자치구 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수시로 열어 지원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 조합설립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행정절차와 전문정보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공공지원에 나섰다"며 "자치구가 선정한 전문업체를 통해 동의서 징구부터 창립총회까지 지원하고, 조합설립 초기 부담을 덜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 2150가구 개발 탄력

국토부,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2029년 착공, 2032년 입주 목표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에 2150가구를 공급하는 공공개발사업이 본격화한다. 정부가 개발 계획을 발표한 지 5년여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을 오는 21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래된 건물이 많고 생활시설이 부족한 쪽방촌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도심 주택을 늘리려는 취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맡아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와 분양주택 1150가구를 공급한다. 오는 2029년 착공하고 2032년 준공·입주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조감도. /국토교통부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은 지난 2021년 2월 처음 발표됐다. 당초 2023년 착공해 2026년 입주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주 등이 강제수용과 보상 수준에 반발하면서 지연됐다. 민간 재개발을 요구하는 토지주와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공공개발을 촉구하는 쪽방 거주민 간 이견도 이어져 왔다.

정부는 기존 쪽방 거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원래 전용면적 21㎡ 이상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각 가구에는 취사시설과 욕실·화장실, 냉난방시설을 갖춘다. 공사 기간에는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해 주민들의 이주부터 재정착까지 도울 방침이다.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늘리고 토지·건물 소유자의 보상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달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건물 소유자가 현금 대신 주택을 분양받는 현물보상 제도도 손질한다. 현물보상 분양권만 1개 가진 가구가 이를 양도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이고 현물보상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현물보상 지위도 한 차례 넘길 수 있도록 한다.

분담금을 내기 어려운 소유자는 이익공유형 주택을 현물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한다. 사업자와 협의해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아 초기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민 협의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성채리 기자 cr56@

서울 주택사업경기 한달 새 '긍정 전환'

주산연, 서울·경기 주택가격 상승
비수도권 중 울산 상승폭 전국 최대

서울의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가 이달 110으로 상승했다.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사업자들의 사업 여건 개선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비수도권은 일부 지역의 전망이 개선됐음에도 여전히 대부분 기준치를 밑돌아 지역별 온도 차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10월 전국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86.4로 전월 대비 6.5포인트(p) 상승했다. 수도권은 11.0p 오른 100.2, 비수도권은 5.5p 상승한 83.4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전월 97.2에서 110으로 12.8p 상승했다. 인천은 79.3에서 90.6으로 11.3p, 경기는 91.1에서 100.0으로 8.9p 각각 올랐다.

주산연은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사업 여건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 강남3구와 일부 한강벨트 지역은 거래가 위축됐지만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천 역시 서울과 경기의 시장 강세에 따른 회복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울산이 전월 75에서 107.1로 32.1p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부산은 26.2p 오른 90.9, 충북은 17.5p 상승한 80, 대전은 13.5p 오른 94.7로 나타났다. 충남(85.7), 광주(100), 제주(64.7), 대구(92), 경북(80)도 전월보다 상승했다.

반면 강원은 12.6p 하락한 69.2, 경남은 9.6p 내린 75으로 전망됐다. 세종(93.3)과 전남(60)도 하락했으며 전북은 75으로 전월과 같았다. /이현진 기자

신한카드

최대 1000만원 한도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신한카드는 20일 카드사 가운데 처음으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출시했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중저신용자 전용 민간중금리 상품인 생활안정대출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 대출 기간은 최장 36개월까지다. 대출금리는 연 최저 9.9%에서 최대 12.26%까지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만,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생활안정대출 취지에 따라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주택구입 금지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대출 신청은 신한 쏠(SOL)페이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안정적인 신용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출시하게 됐다"며 "신한금융그룹의 포용금융 2.0 'ON'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삼성전자, 완제품 사업 손본다
출하량 조절·설치 비용 현실화

갤럭시A 시리즈 출하 목표 조정
사다리차 이용 등 일부비용 청구
엔지니어 안전·권리 보호 취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출하 목표를 낮추고 가전제품 설치비 부과 기준을 변경하는 등 완제품 사업에서 비용 관리에 나서고 있다. 스마트폰은 제조원가 상승에 대응해 생산 물량을 줄이고 가전사업에서는 기존에 무상으로 제공하던 일부 특수 설치 서비스에 별도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다만 설치비 변경은 비용 절감보다 설치 엔지니어의 권리 보호에 무게를 둔 조치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탑재한 갤럭시A 시리즈의 출하 목표를 기존 1억2000만대에서 1억대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계획보다 2000만대(16.7%) 줄어든 규모로, 올해 예상 출하량인 1억1000만대에도 못 미친다.

올해 전체 스마트폰 출하 목표도 기존 2억4000만대에서 2억3000만대 초반으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최근 협력사에 전달한 4분기 부품 발주량 전망치를 낮춘 데 따른 것으로 내년에도 스마트폰 출하 목표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출하 목표 조정에는 메모리 가격 상승과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인공지능(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제조사들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확대했고,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메모리 공급도 빠듯해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8일 발표한 3분기 잠정실적에서 매출 195조원,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앞서 발표된 2분기 실적에서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이 영업이익 89조2000억원을 거둔 반면 스마트폰과 가전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은 영업손실 8000억원을 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이 반도체 사업에는 호재로 작용했지만 완제품 사업에는 원가 부담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회사는 스마트폰 사업에서 생산 물량을 줄이는 데 이어 가전사업에서는 일부 특수 설치 서비스에 별도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이달 1일부터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 설치 과정에서 사다리차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거나 별도 운반 작업이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추가 요금은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특수장비 사용, 수작업 운반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다리차 이용료는 층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최대 15만원이며, 스카이차는 최대 29만원이다. 일반적인 배송·설치에는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는 이번 가전 설치 요금 부과는 비용 절감보다는 설치 엔지니어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가구 배송이나 이사 과정에서 특수장비 이용료를 별도로 받는 것처럼 일반적인 설치가 어려운 현장에 한해 비용을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기존에는 서비스로 제공하던 부분이지만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일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진행된 '레벨 4 자율주행 트럭 물류 운송 사업 실증' 업무협약식에서 현대글로비스 미래물류기술센터 한규헌 상무(왼쪽부터), 라이드플럭스 박중희 대표, 현대차 글로벌상용&LCV 사업본부 박철연 전무, 현대차·기아 상용LCM담당 박상현 부사장, 마스오토 박일수 대표, 현대모비스 통합구매실 남석윤 상무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차·기아, 레벨4 자율주행 트럭 '시동'

내년 말까지 실제 물류환경 실증

현대자동차·기아가 레벨4 자율주행 트럭의 상용화를 위해 실제 물류 환경에서 기술 신뢰성과 운행 안정성 검증에 나선다.

현대차·기아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남양기술연구소에서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마스오토, 라이드플럭스와 '레벨 4 자율주행 트럭 물류 운송 사업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1대와 엑시언트 1대 등 총 2대의 실증 차량 개발에 착수해 내년 초 제공할 예정이다. 각 차량에는 자율주행 시스템 연동을 위한 맞춤형 제어기와 차량 인터페이스가 적용된다.

본격적인 실증은 내년 말까지 약 100km의 고속도로·도심 복합 구간과 약 400km의 고속도로 중심 장거리 구간 등 2개 운송 환경에서 진행된다.

국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 마스오토와 라이드플럭스는 각 특화 차량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하고,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는 기존에 운영되는 물류 노선을 활용해 실증 운영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레벨 4 자율주행 대형 트럭의 차량 제어 및 안전 이중화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차세대 교통안전 솔루션 선봬

2026 ITS 세계총회

V2X·V2N 결합 솔루션 시연
글로벌 모빌리티 사업영역 확대

LG전자가 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 통신 기술을 활용해 교통사고 예방과 주행 안전성 강화에 나선다. 차량 주변의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통합 교통안전 솔루션을 앞세워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오는 23일까지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는 '2026 ITS 세계총회(ITS World Congress)'에 참가해 차세대 교통안전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차량·사물 간 통신(V2X)과 차량·네트워크 간 통신(V2N)을 결합한 교통안전 솔루션을 실제 도로에서 시연한다. 참가자들은 약 2.6km 구간을 주행하는 차량에 탑승해 고장·정지 차량과 도로공사, 악천후, 구급차 접근, 보행자 충돌 위험 등을 사전에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



V2X의 빠른 응답성과 V2N의 넓은 서비스 범위를 상호 보완한 LG전자 통합 교통안전 솔루션 개념도. /LG전자

V2X는 차량이 다른 차량이나 도로 인프라와 직접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이다. 별도의 이동통신망을 거치지 않아 주변 V2N은 이동통신망을 통해 차량을 클라우드 서버 등과 연결해 보다 넓은 지역의 교통·기상 정보를 제공한다.

LG전자는 두 기술의 장점을 결합해 통신 환경에 따른 정보 전달의 한계를 보완했다. 도로변이나 신호등 등에 설치된 노변기지국(RSU)의 통신 범위에서는 V2X와 V2N으로 수집한 정보를 함께 활용하고, 직접 통신이 어려운 구간에서는 V2N을 통해 위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차량이 이동하는 동안에도 주변 교통 상황을 안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솔루션은 유럽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앤캡(Euro NCAP)의 최고 등급 기준을 충족한다.

LG전자는 완성차 업체들의 안전성 평가 대응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전환에 필요한 통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HMM, LNG 대형 선박·피더선 동시 확충

2조 투자… 해운시장 경쟁력 강화

HMM이 컨테이너선 12척 확보에 약 2조원을 투자하며 글로벌 해운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대형 선박과 피더선을 동시에 확충해 원양 핵심 항로의 운송 효율을 높이고, 주요 거점 항만을 연결하는 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HMM은 20일 HD현대와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8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선박은 모두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를 사용하는 저탄소 선박이다. HD현대삼호가 6척, HD현대중공업이 2척을 각각 건조하며 2029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HMM은 2800TEU급 3척과 1700TEU급 1척 등 피더선 4척도 리세일 방식으로 확보한다. 리세일은 건조 중인 선박의 계약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신규 발주보다 선대 확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형선은 극동·인도·지중해를 잇는 FIM 노선에 투입하고, 피더선은 거점 항만과 지선망을 연결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HMM의 중장기 선대 확충 전략의 일환이다. 회사는 2030년까지 컨테이너선 166척과 벌크선 110척 체제를 구축하는 등 총 2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최원혁 사장이 취임한 2025년 3월 이후 누적 투자 규모는 12조원이며, 올해 투자액은 이번 선박 투자를 포함해 약 6조원에 이른다.

피더선은 2025년 3월 12척에서 올해 운항·발주 선박 기준 42척으로 늘었다. 벌크선 역시 같은 기간 44척에서 60척으로 증가했으며, 가스선과 자동차선 등으로 선종을 다변화하고 있다. 미국 타코마 터미널의 크레인 교체와 디지털 전환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美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 국내 정밀의료시장 공략

'시프트 유어 사이언스' 개최

삼성전자가 최대주주인 미국 유전자 분석 장비 기업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가 1인당 유전체 분석 비용을 100달러(약 13만원)로 낮춘 장비를 국내서 선보인다. 유전자 분석 장비와 신약 개발 연구를 지원하는 솔루션을 앞세워 정밀의료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엘리먼트가 20일 서울 마포구 라이즈 호텔에서 글로벌 로드쇼 '시프트 유어 사이언스(Shift Your Scienc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전자 분석 장비 '비타리(VITARI)'를 시연하고, 여러 생체 정보를 동시에 분석하는 '사이토스(Cytos)'의 첫 출하를 발표한다.

기조 강연은 공동 창립자인 몰리 허 최고경영자(CEO)와 마이클 프레바이트 최고기술책임자(CTO)가 맡는다. 엘리먼트는 서울을 시작으로 미국 샌디에이고와 독일 뮌헨, 스웨덴 스톡홀름 등에서도 로드쇼를 열 예정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비타리는 탁상형 크기로 대량의 DNA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장비다. 회사에 따르면 분석 정확도는 99.99%이며, 한 번에 처리하는 분석량은 기존 제품보다 5배 이상 많다. 이를 활용해 희귀질환과 암 연구, 개별 세포의 RNA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함께 소개하는 사이토스는 개별 세포에서 다양한 생체정보를 확보하는 솔루션이다. 세포 형태와 단백질 발현, 세포에서 생성되는 RNA 전체인 전사체 등을 하나의 기기로 분석한다. 이 같은 멀티오믹스 기술은 다양한 생체정보를 종합해 유전정보가 세포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파악하는 데 쓰인다.

/구남영 기자

GS글로벌, 후시파트너스 지분 투자

탄소배출권 사업 전략적 협력기반 마련

GS글로벌이 탄소배출권 전문기업 후시파트너스에 지분을 투자하며 탄소배출권 사업을 확대한다. 전기버스·재생에너지 등 기존 친환경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산화하고 거래·중개로 연결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GS글로벌은 후시파트너스에 지분투자를 단행하고 탄소배출권 사업을 위한 전략적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는 후시파트너스의 감축사업 개발·운영 역량과 GS글로벌의 친환경 사업 기반을 결합해 탄소배출권 확보와 거래를 추진한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2026~2030년) 시행과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로 기업들의 배출권 조달 부담이 커지는 만큼, GS글로벌은 이번 협력으로 관련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GS글로벌은 후시파트너스의 전문성을 활용해 기존 친환경 사업에서 감축실적을 확보할 방침이다.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버스 전환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 자원순환 분야에서 감축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KOC를 수요처에 공급하는 수익모델을 구축한다.

해외 사업에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트레이딩 역량을 활용한다. 양사는 GS글로벌의 해외 철강·에너지·산업재 고객을 대상으로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수주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中企 리더스포럼’ 탄생 주역 김기문 회장… “AI 양극화 해소”

〈中企중앙회〉

제주서 3박4일간 포럼 막 올려
‘中企와 AI 3대 강국’ 도약 화두
국회의장·총리 “中企 성장 지원”
이소영 장관도 만찬 참석해 소통

2007년 金 회장 착안으로 출범
총 19회 중 재임 기간 15차례 주도
金 “첫 행사부터 큰 호평” 회고
2012년 ‘경제 3불’ 공론화 성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개막식에서 개막사를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자신이 2007년 처음 만든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총 16년의 재임기간 15번 치렀다. /중기중앙회

2007년 7월11일 제주 롯데호텔.

포럼은 한 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전유물로만 인식됐었다.

그러다 이날 중소기업계 ‘맏형’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이란 이름으로 온전히 중소기업 CEO들을 위한 첫 행사를 열고 2박3일 일정을 시작했다. 행사는 중소기업 CEO들의 경영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강좌, 제주 곳곳을 탐방하는 문화행사, 친교 행사 등으로 꾸며졌다.

1회 리더스포럼의 타이틀은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희망’이었다.

다시 2026년 10월20일 제주 롯데호텔.

세월은 어느덧 19년이 흘렀다. 포럼이 열린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었다. 일정도 2박3일에서 3박4일로 늘었다.

그 사이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강원도 평창, 경북 경주를 거쳐 다시 제주로 돌아왔다. 한 해도 빠짐없이 열렸다면 올해 20회였을 리더스포럼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 한 해만 건너뛰었을 뿐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포럼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19회째인 올해 리더스포럼의 주제는 ‘중소기업과 함께, AI 3대 강국으로’다.

이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탄생시킨 주역은 다름 아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다.

“할 말은 하고, 할 일도 하는 중소기업계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며 2007년 초 제23대 회장에 당선된 ‘젊은 피’ 김 회장은 업계내 요구를 반영해 같은 해에 리더스포럼을 만들고 실행에 옮겼다. 55년생인 김 회장의 당시 나이는 52세였다.

김 회장은 25대를 제외하고 23·24·26·27대 회장을 맡으며 16년간 중기중앙회를 이끌어왔다. 규정상 3연임이 불가능해 김 회장으로선 이번 행사가 사실상 재임 시절 마지막 리더스포럼이다. 김 회장은 총 19번의 포럼 가운데 올해까지 모두 15번을 준비하고 치렀다.

김 회장도 지난 시간을 회고하며 이날 포럼 개회사를 통해 “당시 전경련(현 한국경제인협회)이 주관하는 하계포럼에 중기중앙회가 동참하는 수준이었는데 참석해보니 대기업 위주 포럼이라 중소기업에 맞지 않고 효과도 없었다”면서 “제가 중앙회장이 되고 나서 중소기업계에 특화된 포럼을 만들겠다고 태스크포스(TF)를 짜서 제1회 포럼을 2박 3일로 출범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당시에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2012년 6회 리더스포럼에선 ‘경제민주화’를 이슈로 제기해 ▲거래 불공정 ▲시장 불균형 ▲제도 불합리를 중심으로 한 소위 ‘경제 3불(不)’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당시 여야 대선 후보들이 핵심 공약에 반영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현재 우리 중소기업들은 법인 파산과 은행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임금체불도 2조원이 넘는 등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고 대·중소기업의 AI 격차는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AI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그래서 올해 포럼 주제를 ‘중소기업과 함께, AI 3대 강국으로’로 정했다”고 소개했다.

개막식에선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영상축사로 인사를 대신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세계가 AI 중심으로 산업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국회도 중소기업의 더 큰 성장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총리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말 취임 후 현장 소통 행보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에서 열린 ‘2차 모두의 창업 출범식’ 참석 직후 제주행 비행기를 타고 리더스포럼 만찬 행사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했다.

이 장관은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국가 성장 프로젝트에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정책의 출발점은 현장’이라는 기조 아래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기업이 마음껏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제주)=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9.3만명 몰린 ‘모두의 창업’ 1만명 선발

중기부, 2차 모두의 창업 출범식 개최
1차보다 지원자 3만명 늘며 열기 고조
선발자에 창업자금·멘토링·AI 지원

총 9만3000여명이 지원한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1만명의 도전자를 선발하며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오후 서울 마포에 있는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 서울에서 ‘2차 모두의 창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소영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1·2차 선정자, 멘토 기관, 선배 창업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출범 행사가 동시에 열렸다.

2차 모두의 창업에는 짧은 모집기간에도 1차의 6만3000여명보다 3만명 가량 많은 인원이 신청, 뜨거운 창업 열기를 실감케 했다.

선발된 1만명의 도전자들은 앞으로 창업활동자금, 전문 멘토링, AI(인공지능) 솔루션 등을 지원받으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1차 모두의 창업에서는 멘토링과 사업 구체화 과정을 거치며 투자 유치, 특허출원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도전자들이 등장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 함께한 1만명의 도전자 개개인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갈 주인공”이라며 ”도전자들이 마음껏 시도하고 실패에서 배우며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창업의 전 과정을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행사 이후 전국 17개 시·도에선 지역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김승호 기자

두산에너빌리티, 유도무기 엔진 국산화 추진

LIG D&A와 엔진 개발 업무협약

두산에너빌리티가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와 손잡고 유도무기 엔진 국산화에 나섰다. 양사의 항공엔진 기술과 유도무기 체계 개발 역량을 결합한 엔진 국산화는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방산 수출 제약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LIG D&A와 유도무기 엔진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LIG D&A는 유도무기 체계 개발을, 두산에너빌리티는 해당 체계에 적용할 엔진 개발을 맡는다. 양사는 엔진 개발부터 시험·평가, 인증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해 차세대 유도무기 엔진 국산화 역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장거리 정밀타격체계 수요가 늘면서 고성능 엔진 확보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양사는 유도무기 체계와 항공엔진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방산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손승우 두산에너빌리티 파워서비스BG장은 “이번 협약은 국내 최고 유도무기 체계 개발 역량을 보유한 LIG D&A와 장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양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을 결합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K-방산 ‘기술 국산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귀 모양 달라도 누구나 편안하게 착용”

삼성, 첫 클립형 이어폰 ‘버즈 온’
1억1900만개 시뮬레이션 분석 설계

“사람마다 귀 모양이 다른데 균일한 착용감을 제공하기 위해 1억1900만개의 시뮬레이션을 분석했습니다.”(삼성전자 MX사업부 웨어러블 상품기획그룹 남현정 프로)

삼성전자가 최초로 출시한 클립형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온’을 귀에 걸치자 자연스럽게 밀착됐다. 무게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벼웠지만, 적당한 압력으로 귀를 감싸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도 착용 상태가 흐트러지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클립형 무선 이어폰으로 새로운 착용 경험과 인공지능(AI) 기반 핸즈프리 기능을 앞세워 웨어러블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지난 1일 공개한 갤럭시 버즈 시리즈 최초의 클립형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온’의 개발 스토리를 소개했다. 갤럭시 버


삼성전자의 최초 클립형 이어폰 갤럭시 버즈 온을 착용한 모습. /양성운 기자

즈 온은 귀에 가볍게 걸치는 형태로 주변 소리를 자연스럽게 인지하면서 음악과 통화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발의 핵심은 편안함과 안정성의 균형이었다. 4D 컴퓨팅 기반 AI 최적화 기술을 활용해 귀에 닿는 면적과 압력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설계하고 음질과 통화 품질도 보강했다. 커널형보다 저음 표현에 불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동일한 우퍼 스피커 2개를 활용한 ‘트윈부스트 스피커’를 탑재했다. /양성운 기자 ysw@

중진공

규제자유특구 기업 투자유치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IR-DAY’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20일 중진공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IR-DAY’는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특구에서 실증기술 사업화를 추진 중인 기업에 민간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진공은 특구 사업자의 민간 투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KVIC)와 협력한다. 한국벤처투자의 풍부한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업종별 전문 투자 심사역을 섭외하고, 기업의 경영 현황과 IR 발표를 투자자 관점에서 심층 평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 결과에 대한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해 참가기업의 잠재적인 투자유치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귀뚜라미, 가족 생활패턴 읽는 ‘AI 보일러’

레이더 센서로 방마다 재실 여부 감지

귀뚜라미보일러가 가족 전체의 생활패턴을 분석해 난방과 온수를 알아서 제어하는 AI 보일러를 출시했다.

귀뚜라미는 ‘거꾸로 NEW 콘덴싱 L 10’에 AI 난방과 온수 기능을 적용해 사용자 생활패턴에 따라 보일러 운전을 알아서 조절하는 ‘귀뚜라미보일러 AI 방방 난방 시스템’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귀뚜라미보일러 AI 방방 난방 시스템’은 각 방의 실내 온도조절기에 탑재된 레이다(RADAR) 센서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감지하고, 딥러닝으로 분석해 방마다 맞춤형 난방을 제공한다.

AI는 각 방을 비우는 시간에 따라 난방 온도를 낮추는 속도를 차등 적용한다. 재택근무 공간이나 아이 방처럼 1~6시간 정도 짧게 비우는 방은 2시간에 1℃씩 천천히 낮추고, 반나절가량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6~12시간 부재 공간은 1시간에 1℃씩 조절한다.

손님방 등 12시간 이상 장시간 비우는 공간은 30분에 1℃씩 빠르게 온도를 낮춘다. 외출 후 차가워진 집을 빠르게 데워주는 ‘쾌속 난방’도 적용했다. 가족 모두 외출했다가 돌아와 난방을 가동하면 난방수 온도를 85℃로 높여 최대 10분간 거실을 빠르게 난방한 뒤 기존 설정으로 자동 복귀한다.

온수도 사용자의 생활습관에 맞춰 미리 준비한다. ‘온수 AI 모드’는 하루 24시간을 10분 단위의 144개 구간으로 나눠 최근 6일간의 온수 사용패턴을 분석한다.

/김승호 기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숨은 길을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대한민국 로열로드 45

지정도시 전국 모집



관광객이 미처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길 ,
로열 로드카를 타고 만나는 45 개의 특별한 여행

전국 45 곳 발굴 · 45 개 공식 지정 · 1 곳 당 로드카 20~30 대 , 2~3 개 팀 운영



모집 대상

**왕실문화·역사·바다·강·호수·산사·농촌 풍경 등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길을
로드카 20~30대가 2~3개 팀으로 나뉘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지역**

선정 지역에는 노선개발·여행상품·공동홍보·통합예약·지정도시 인증을 지원합니다



권장 신청구조

지자체 + 지역 운영파트너 + 상인·주민 협의체

지역의 길을 관광산업으로 바꿀 대한민국 로열로드 지정도시를 찾습니다

사업 참여 문의 010-3414-4939

ON나눔

대한민국 로열로드 45 지정도시

구글지도 月 이용자 1000만명 돌파
네이버·카카오, '일상 연결'로 방어

구글지도, 3개월 연속 1000만명대
지도·검색 생태계 동시 보유 '강점'
국내 지도시장 변화 단정은 아직

네이버, 지도 서비스 소비로 연결
카카오, 검색 공유 등 일상 연결


AI에 의해 생성된 구글지도와 국내 지도 서비스 플랫폼.

구글지도가 국내 월간 이용자 1000만명 시대를 열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구축한 국내 지도 서비스 시장에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지도 서비스가 단순 길 찾기를 넘어 검색과 광고, 예약, 결제까지 연결되는 핵심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방어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9월 구글지도의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1019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했다. 지난 7월 1013만명으로 처음 1000만명을 돌파한 이후 8월 1118만명, 9월 1019만명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1000만명대를 유지했다.

같은 기간 네이버지도 이용자는 3054만명으로 선두를 지켰다. 티맵은 1520만명, 카카오맵은 1340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이용자 증가율은 네이버지도 9.3%, 카카오맵 7.0%, 티맵 3.6%로 구글지도가 주요 4개 앱 가운데 가장 높았다.

구글지도와 카카오맵의 이용자 격차도 지난해 9월 368만명에서 올해 9월 321만명으로 줄었다. 구글지도가 아직 국내 플랫폼의 이용자 규모를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추격 속도만큼은 빠르다는 평가다.

◆ 구글지도 1000만명 안착…검색·광고 시장까지 경쟁 확대

구글지도의 성장세가 주목받는 이유는 지도 서비스가 플랫폼 기업의 핵심 수익 기반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지도는 이용자의 이동 경로뿐 아니라 음식점과 카페, 숙박시설 등 지역 상권에 대한 검색 수요가 집중되는 서비스다. 지도 이용자 확보가 지역 검색과 광고, 커머스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구글은 글로벌 지도 서비스와 검색 생태계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해외여행과 장소 검색에 익숙한 이용자를 기반으로 국내에서도 서비스 접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특히 구글 검색과 지도 간 연결은 이용자의 정보 탐색 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다만 구글지도의 성장세를 국내 지도 시장의 주도권 변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난 9월 이용자는 여름 휴가철인 8월보다 약 99만명 감소했다. 해외여행 수요가 이용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내 생활권에서의 이용 확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 네이버·카카오, 생활 플랫폼으로 방어…고정밀 지도 변수

이에 맞서 국내 플랫폼들은 축적한 지역 정보와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앞세워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지도의 강점은 국내 검색과 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플랫폼 생태계다. 이용자는 네이버지도에서 음식점과 카페를 검색하고 방문자 리뷰를 확인한 뒤 예약까지 진행할 수 있다. 스마트플레이스를 통해 축적한 지역 사업자 정보 역시 구글과 차별화되는 경쟁 요소다.

네이버는 지도 서비스를 오프라인 소비를 연결하는 접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 검색과 예약, 결제로 이어지는 서비스 구조는 이용자의 플랫폼 체류와 사업자 접점을 확대하는 기반이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맵과 카카오톡,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존 서비스 생태계를 활용하고 있다. 카카오맵에서 검색한 장소를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거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등 일상생활과 연결된 이용 경험이 강점이다.

티맵은 차량 내비게이션과 실시간 교통정보를 중심으로 차별화하고 있다. 운전자 중심의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장소 검색 중심의 지도 서비스와는 이용 목적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향후 시장 경쟁을 좌우할 변수 중 하나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다. 구글은 국내 지도 데이터 활용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 관련 정책과 데이터 접근 여건의 변화가 서비스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플랫폼들이 축적한 지역 정보와 길 안내 서비스의 경쟁 우위가 얼마나 유지될지도 관전 요소다.

인공지능(AI) 기술의 접목도 경쟁을 가속할 전망이다. AI가 이용자의 목적과 상황을 이해해 장소를 추천하고 이동부터 예약까지 연결하는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지도 플랫폼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구글의 글로벌 플랫폼 경쟁력과 네이버·카카오의 생활 서비스 경쟁력이 맞붙는 가운데 지도 데이터와 AI 서비스 고도화가 향후 시장 주도권을 가를 전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5G 한계 넘어 우주망으로
통신사, AI 산업 생태계 견인

통신의 진화
❸ AI 네트워크

통신사, 정부와 세계 첫 5G 개통
가상현실 대중화 실패… 체감 아쉬워
2030년 6G 목표… 통신영역 확장

실시간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5G는 모든 사물을 지능화하고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주목 받았다. 2015년 유엔 산하 기구 ITU는 5G 기술 표준을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로 정의했다.

국내 통신사들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이런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정부는 'IT 강국' 지위를 이어가기 위해 5G 상용화 총력전을 펼쳤다. 스마트 팩토리와 자율주행, 지능형 CCTV, 재난 관리 등을 산업과 기관에 선제 도입하기 위해서다.

2019년 4월 3일 밤 11시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 5G 개통에 성공한다. 미국의 버라이즌은 약 1시간 후 5G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기념비적인 사건에 김연아와 페이커 등 당시 상징적인 스포츠 스타가 5G 연결을 지원하는 삼성전자 갤럭시 S10의 1호 가입자가 됐다.

그러나 콘텐츠 시청 등 일상적인 영역에서 속도 차이를 실감하지 못한 대중들은 실망했다. 통신사들은 4세대 이동통신과 차별화된 기술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상현실(VR), 메타버스 등을 콘텐츠로 내세웠지만 일상 생활 속에서 이용 동기가 부족해 대중화하지 못했다.

기술적으로도 LTE망과 5G망을 함께 쓰는 비단독모드(NSA)를 구현한 것이 한계로 지적됐다. 본래 5G 전용 주파수로 쓰이려던 28㎓ 대역은 투자 대비 수익성이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이음5G'을 통해 소수 산업에만 이를 공급 중이다. 현재 KT만 5G 전용망을 단독으로 사용하는데, 지난해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030.25Mbps로, 이는 4G 대비 20배 이상 빠른 속도다.

네트워크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 혁신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던 중 통신 기술의 가치를 다시 증명할 기회가 열렸다. 바로 2030년 상용화가 목표인 6세대 이동통신이다.

6G의 목표는 'AI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 영역의 확장으로 요약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중심으로 지상과 우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AI와 통신을 결합해 네트워크 운영 효율을 높이고 지상망과 비지상망을 연결해 통신 음영 지역을 해소한다.

또한 지능형 네트워크 구현을 위해 AI를 무선접속망(RAN)에 적용한다. 통신 자원을 AI로 조정해 혼잡을 줄이고, 트래픽 자동 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지연 시간을 더 짧게 줄일 수도 있다. 6G 기지국의 엣지 AI로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에서 하는 AI 연산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실시간 응답이 가능해 0.1ms 속도의 초저지연을 구현할 수 있다. 앞으로는 차세대 컴퓨팅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를 뒷받침하고 피지컬 AI를 연결할 전망이다. 다가올 6G 시대에 AI 산업 생태계를 이끌 통신사의 활약이 예상되는 이유다.

/조민선 기자 msjo@

LG헬로비전, 국감서 언급된 지역 현안 조명

헬로tv뉴스 '국감, 지역을 묻다' 운영

LG헬로비전은 지역채널 뉴스 프로그램 '헬로tv뉴스'에서 기획 코너 '국감, 지역을 묻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핵심적인 지역 현안을 집중 보도하는 프로그램이다. 기후 변화로 인한 연안 생태계 위기부터 의료관광 격차, 교육 여건 개선 문제까지 주민 일상과 맞닿은 국감 이슈를 발 빠르게 전달한다는 취지다.

국정감사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정책을 점검하는 자리로,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굵직한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이에 LG헬로비전은 국감장에서 오가는 다양한 지역 발전 논의를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지역 상생 가교'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특별 기획 '국감, 지역을 묻다'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수온 상승으로 인한 부산 북항 인근 상어 '부캉이' 출몰 사례를 조명하며, 바다 생태계 변화에 맞춘 연안 안전 대책과 어민 생존권 방안을 짚었다. /조민선 기자

KT-아크릴, 의료 AX 사업모델 공동 발굴

의료 데이터 표준화 등 협력 체계 마련

KT가 의료 분야 인공지능전환(AX)에 박차를 가한다. 자사의 '의료 표준화 모델'을 통해 의료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면서다.

KT는 의료 AI 전문기업 아크릴과 AI 서비스 도입을 위한 의료 AX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의료 현장은 다양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진료 지원과 데이터 활용, 연구, 행정 등 병원 운영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산된 의료 데이터를 표준화 하고 이를 의료 서비스와 업무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KT는 의료 AI 전문기업 아크릴과 맞춤형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모델을 공동 발굴한다. KT가 보유한 AI·클라우드·데이터 기반의 통합 구축 역량에 아크릴의 의료 특화 AI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에 실증하는 경험 등을 결합할 예정이다.

업무 협약은 노형래 KT 엔터프라이즈부문 기업사업본부장 상무와 박외진 아크릴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선릉 아크릴 본사에서 체결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의료 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기반 조성 ▲의료 AI 기술·서비스 공동 발굴 및 실증 ▲의료 AI 연구개발 및 사업화·확산 등이다.

양사는 의료기관별 공동 제안과 실증을 추진하고, 기술 검증부터 실제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공공 연구과제와 신규 사업 기회도 함께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노형래 KT 엔터프라이즈부문 기업사업본부장 상무(오른쪽)와 박외진 아크릴 대표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

한편 KT는 자사의 의료 표준화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AX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 전문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민선 기자

카카오톡 콘텐츠 이용 편의성 강화

카카오, 채널홈·소식 기능 개편

카카오가 카카오톡 채널의 콘텐츠 노출 방식과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널홈'과 '소식' 기능을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채널 운영 파트너는 업종과 운영 방식에 맞춰 채널을 구성하고, 이용자는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새로운 채널홈 유형인 '콘텐츠형 채널홈'을 추가했다. 채널에 게시된 소식과 숏폼 콘텐츠를 격자형 피드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관심 있는 콘텐츠를 선택한 뒤 화면을 위아래로 넘기며 해당 채널의 다른 소식과 숏폼을 연속해서 볼 수 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바로가기 기능도 강화했다. 쿠폰과 예약하기, 전화하기 등 채널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을 버튼으로 구성해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최빛나 기자

코스피 급락에 저평가 매력 커져… AI 실적·美 선거가 변수

JP모간 저평가에도 추가 투매 경계
중간선거 따라 정책 수혜 차별화
전력기기·ESS·방산 등 관심 커져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됐지만, 추세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미국 인공지능(AI) 기업들의 수익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ChatGPT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됐지만, 추세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미국 인공지능(AI) 기업들의 수익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 달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력기기·에너지저장장치(ESS)·방산 등 비반도체 업종의 정책 수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15.27포인트(3.73%) 내린 5552.74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들어 이날 종가까지 하락률은 -18.8%에 달한다. 낙폭이 커진 만큼 가격 부담은 낮아졌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반도체 두 종목에 시총 46.5%…AI 실적이 관건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합산 2129조8801억원으로 코스피 전체 시총 약 4580조원의 46.5%를 차지한다. 두 종목의 비중이 큰 만큼 미국 AI 기업의 투자 축소 가능성은 개별 반도체주를 넘어 지수 전반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급락으로 가격 부담은 낮아졌다. JP모간이 분석한 메모리 반도체 제외 코스피의 향후 12개월 주가수익비율(PER)은 8.4배로 과거 분포 하위 11% 수준이다. JP모간은 AI 설비투자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근거로 향후 6~12개월 한국 증시의 강세 전망을 유지했다. 다만 외국인 자금 이탈과 국내 매수 기반 약화로 바닥을 확인할 수급상의 근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중장기 가격 매력은 높아졌지만, 단기 저점 확인은 별개라는 진단이다. iM증권도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5100~5340선을 지지 후보 구간으로 제시했다.

다만 개별 AI 기업의 자금난을 메모리 수요 전반의 위축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노무라증권이 추적한 글로벌 데이터센터 신규 설비 규모는 올해 22.3기가와트(GW)에서 내년 31.5GW로 늘어난다. 노무라는 이를 근거로 적어도 2028년까지 메모리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구축한 데이터센터와 장비는 다른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어 일부 기업의 자금난이 투자 전반의 중단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한적으로 봤다. 다만 투자계획 축소와 사업 지연이 확대되면 전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메타 등 미국 빅테크 실적에서는 투자 규모뿐 아니라 실제 매출과 이익, 향후 지출 계획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만약 메타가 견고한 실적과 함께 AI 설비투자(CAPEX)의 당위성을 입증할 명확한 ROI(투자수익률) 가이던스를 제시한다면, AI 성장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적 확인 전까지는 저평가 매력과 투자 둔화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분할매수 구간으로 보이기는 하나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간선거도 변수…비반도체 정책 수혜 주목

다음 달 3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반도체 업종의 정책 수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이 양원을 확보하면 전력기기·헬스케어·신재생에너지, 분점 의회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공화당이 양원을 유지하면 방산·원전 등이 수혜 후보로 거론된다.

반도체 중심의 조정장에서도 2차전지주는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 급락에도 이 달에만 LG에너지솔루션은 16.46% 상승했다. 미국 ESS 시장 확대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대가 비반도체 업종의 투자 대안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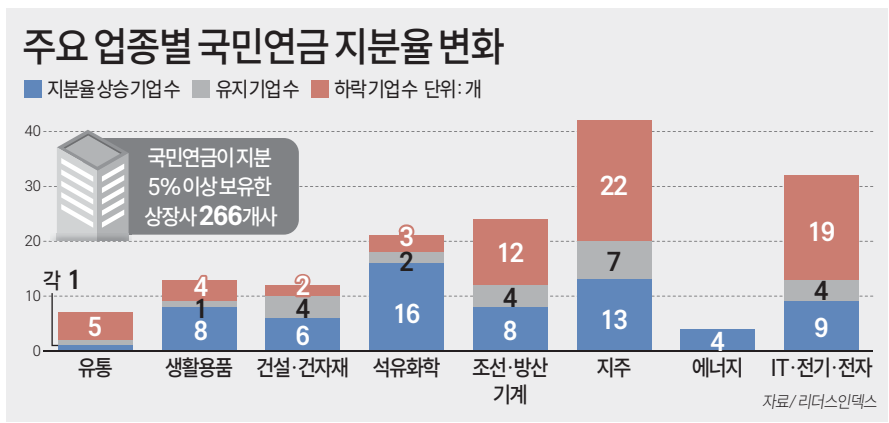
ESS는 에너지 안보와 전력망 안정 수요가 뒷받침하는 분야다. 기존 감세법에서도 투자세액공제가 유지돼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전력기기 역시 데이터센터 전력망 확충에 따른 설비 수요가 관심 요인이다. 공화당이 양원을 지키면 국방 지출 확대와 원전 규제 완화에 힘이 실리면서 국내 조선·방산·원전 업체에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정책 기대가 실제 수주와 이익으로 연결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상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기본 시나리오는 이달 말 실적이 이익 추정치를 지키되 공급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는 변동성 높은 바닥 다지기"라고 전망했다. 신규 매수는 SK하이닉스 실적·주주환원과 빅테크의 내년 설비투자 계획 등을 확인한 뒤 분할 접근할 것을 조언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국민연금, 건설·석유화학·화장품 지분 확대

IT·전기·조선·방산 업종 지분 낮춰
반도체 대형주 평가가치 크게 줄어



국민연금이 최근 3개월간 석유화학·건설·화장품 업종의 보유 지분율을 높인 반면 IT·전기·전자와 조선·방산 업종에서는 지분율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으로 두 종목의 평가가치가 급감하면서 국민연금 국내 주식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5%에서 50%로 축소됐다.

2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대량보유 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 15일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는 266개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분율이 이전보다 높아진 기업은 117개사, 낮아진 기업은 112개사였다. 각각 전체의 44.0%, 42.1%다. 나머지 37개사(13.9%)는 지분율에 변화가 없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반도체 대형주의 평가가치 감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국민연금 보유 지분율은 각각 7.9%, 7.9%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평가가치는 크게 줄었다. 삼성전자는 3개월 동안 34조3323억원(26.2%) 감소했고, SK하이닉스는 52조7297억원(42.1%) 줄었다. 두 종목에서 발생한 평가가치 감소분만 87조원을 웃돈다.

두 종목의 지분율 변화가 제한적이었던 것과 달리 다른 IT·전기·전자 기업에서는 지분 축소 흐름이 나타났다. 전자부품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보유 지분율이 낮아졌다. 주가 하락에 따른 평가액 감소와 별개로 업종 내 개별 기업의 지분 조정도 진행된 셈이다.

반대 방향의 움직임은 건설과 석유화학에서 확인됐다. GS건설의 국민연금 지분율은 7.8%에서 12.9%로 5.1%포인트 상승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DL이앤씨도 각각 1.9%포인트, 1.8%포인트 높아졌다. 건설·건자재 업종 분석 대상 12개사 중 절반인 6개사에서 지분율이 상승했다.

석유화학 기업에 대한 지분 확대도 두드러졌다. 분석 대상 21개사 가운데 16개사의 지분율이 높아졌다.

/신하은 기자 godhe@

채권 전문가 93%, 기준금리 '동결' 전망

두 차례 연속 인상 효과 점검 기대

채권시장 전문가 10명 중 9명 이상이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투자협회가 20일 발표한 '2026년 11월 채권시장지표'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93%는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나머지 7%는 인상을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15일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00명이 응답했다.

기준금리 채권시장지표(BMSI)는 93.0으로 전월보다 12.0포인트 상승했다. 금투협은 "2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 점검 기대로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11월 종합 BMSI는 99.1로 전월보다 9.4포인트 올랐다. 한·미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미국 중간선거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에도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보다 개선됐다. BMSI는 100을 웃돌면 채권시장 심리가 양호하고, 100을 밑돌면 위축돼 있음을 의미한다.

시장금리 하락을 예상하는 응답이 늘면서 금리전망 BMSI는 전월보다 24.0포인트 오른 123.0을 기록했다. 금리 하락 전망은 40%로 전월보다 19%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금리 상승 전망은 17%로 5%포인트 줄었다. 보합 전망은 43%였다.

프랑스 국채금리 상승 등 대외 금리 상승 요인에도 국내 증시 조정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와 한·미 기준금리 동결 기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와 환율 관련 심리는 악화됐다. 물가 BMSI는 93.0으로 전월보다 7.0포인트 하락했다.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을 웃돈 가운데 중동 긴장 재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과 근원물가 오름세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

/허정윤 기자

미래에셋, AI 전력·패키징 핵심 부품에 투자

무라타·삼성전기 등 13개 종목 투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글로벌 MLCC&기판 ETF(0255E0)'를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은 'Solactive-KEDI Global MLCC and Semiconductor Substrate 지수'를 추종하는 해외주식형 ETF다. 한국·일본·대만 상장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이 20억 달러 이상이면서 MLCC·커패시터 또는 패키지 기판 사업을 영위하는 13개 기업에 투자한다. 종목별 비중은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산정하며 단일 종목 비중은 20%로 제한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공급 제약이 맞물리는 분야로 MLCC와 기판을 꼽았다. 회사 측이 제시한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메타 등 빅테크 4사의 올해 설비투자 가이던스 합계는 약 7250억 달러로 전년보다 77% 증가한 규모다.

투자가 확대되면서 공급 병목은 GPU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첨단 패키징 등으로 이동해 왔다. 최근에는 전력 공급을 안정화하는 MLCC와 반도체의 연결을 담당하는 기판 등 물리적 제약을 해소하는 부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AI 서버용 고사양 MLCC 시장의 주요 기업인 일본 무라타제작소와 삼성전기다. 여기에 FC-BGA 기판 공급업체인 대만 유니마이크론·난야PCB·킨서스와 일본 이비덴 등을 편입한다.

/허정윤 기자

KB운용, 반도체 소부장 성장주 ETF 출시

업종 비중 탄력 조정

KB자산운용은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는 'RISE 반도체소부장액티브 ETF'를 2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RISE 반도체소부장액티브 ETF'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반도체 소부장 기업 가운데 핵심 종목을 선별해 투자하는 ETF다. 'KEDI 반도체소부장 지수'를 비교지수로 삼고 시장 상황에 따라 업종과 종목 비중을 조정하는 액티브 전략을 활용한다.

반도체 소부장은 전공정·후공정 장비와 기판, 패키징·테스트(OSAT), 소재, 부품 등으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AI 서버 수요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에 힘입어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DDR5 D램 현물 가격은 지난해 10월 대비 약 590%, 낸드 플래시 현물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약 360% 상승했다.

'RISE 반도체소부장액티브 ETF'는 반도체 소부장 산업 내 업종별 투자 비중을 조절하고, 각 업종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 종목을 선별해 투자한다.

/신하은 기자



제26차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총회. /농어촌공사

군산·철원 저수지 2곳 '세계관개시설유산' 등재

농어촌공사 관리 시설 중 첫 등재
미룡·산명호저수지 추가, 총 10곳

우리나라 저수지 2곳(전북 군산·강원 철원 소재)이 세계관개시설유산(WHIS)에 등재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프랑스에서 열린 제26차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총회에서 군산 미룡저수지와 철원 산명호저수지가 공사 관리 시설 중 최초로 WHIS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세계관개시설유산은 국제관개배수위원회가 역사적·기술적·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은 시설을 선정하는 제도다. 100년 이상 된 저수지와 수로 등 관개시설을 대상으로 농업발전에 대한 기여와 선도적인 기술 적용 여부 등을 심사해 인증한다.

한국에서는 2016년 김제 벽골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수원 만석거, 고성 둠벙 관개시스템, 청산도 구들장논 등 8개 시설이 등재됐다. 올해 2곳이 추가되면서 한국의 세계관개시설유산은 총 10곳으로 늘었다.

올해 등재된 두 곳은 오랜 역사를 지닌 시설로 우리나라 근대 관개 발전의 흐름을 보여준다. 미룡저수지는 1600년대에 축조된 뒤 한국 최초의 근대적 관개시설로 개축됐다. 국내 최초의 수리조합이자 공사의 모태인 옥구서부수리조합과 관련된 시설이다.

산명호저수지는 1924년 조성돼 황무지였던 철원 일대를 대규모 곡창지대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 근대 광역 수리체계의 핵심시설이다. 현재까지도 미룡과 산명호 둘 다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공사와 한국관개배수위원회(KCID)는 두 저수지를 후보지로 선정한 뒤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난 6월 국제관개배수위원회에 등재를 신청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최종 선정된 것.

이번 등재로 우리나라 관개시설의 역사와 역할이 널리 알려지고, 두 저수지의 문화·관광자원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공사 관리 시설이 세계관개시설유산에 처음 이름을 올려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관개시설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소중한 자산으로 보전·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韓-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순항' 테믈린 3·4호기도 지속 협력 기대

산업부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 약 25조 규모… 한수원 중심 추진
EU 산업가속화법안 우려 전달 차질없는 추진 위해 韓 공급망 필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가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이 일정대로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 정부가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테믈린 3·4호기에 대한 양국 협력도 기대를 모은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20일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화상으로 제3차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Dukovany Steering Committee)'를 개최하고 양국 원전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약 25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대형 원자력 발전소 5·6호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가 2024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난해 6월 약 1년여간 세부 협상을 거쳐 최종 본계약이 체결됐다.

이후 지난 2월 양국 정부와 발주사(EDU Ⅱ)·공급사(한수원) 간 협의체 발족 후 2 차례 회의를 갖고 두코바니 사업의 차질없는 이행 방안을 조율해오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 양측은 현재까지 정해진 일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체코 현지 인허가 신청 등 사업의 중요 마일스톤을 적기에 이행하기 위한 추진일정과 계획을 검토했다. 아울러 두코바니 사업뿐 아니라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양국의 원전업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협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정관 장관은 지난 3월 발표된 EU 산업가속화법안(Industrial Accelerator Act)이 비EU 국가의 EU 원전시장 참여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체코 측에 전달했다. 김 장관은 "EU 내 원전 공급망이 약화된 상황에서 체코 등 EU 내 원전 건설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한국과 같이 우수한 공급망을 갖춘 국가와의 협력이 필수"라며, 법안이 양국 파트너십을 저해하지 않도록 체코 측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당부했다.

양국은 향후 제4차 협의체를 연내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회의 계기에 양국 원전업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업간 행사 개최를 병행해 의미있는 성과가 다수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협의체에서 체코 정부가 추진 여부를 검토중인 테믈린 3·4호기에 대해 "체코의 첨단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려면 대형원전이 필요할 것이며, 두코바니에 이어 테믈린 3·4호기에서도 양국 원전 파트너십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코바니 이행 점검 협의체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양국간 원전협력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노사발전재단, '노동권 보호망' 이름 공모전

선정작 1점에 온누리 상품권 50만원

노동권 보호를 위해 모인 '민관협력체계'의 공식 명칭을 선정하기 위한 국민 공모전이 열린다.

노사발전재단은 '일하는 사람 노동권 보호 민관협력 네트워크' 이름짓기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이 네트워크는 중앙·지방 정부와 민간 노동센터, 노동단체 등 다양한 지원기관이 힘을 모아 일하는 사람의 노동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체계다.

공모전에는 노동권 보호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네이버폼에 네트워크 명칭과 그 의미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참여자는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정부가 수행했으면 하는 역할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있다. 최종 선정은 다음 달 18일경으로, 심사는 창의성과 완성도, 적합성, 활용성 등을 살펴 이뤄질 예정이다.

재단은 선정작 1점에 온누리 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하고,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모바일 문화상품권 2만원을 제공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채티, 농식품 수출정보·통계 답변 '척척'

〈aT의 AI 서비스〉

과학기술혁신대상 '금상' 수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정보 AI 서비스인 'ChaTi'(채티)가 올해 개최된 과학기술혁신대상에서 '금상'의 자리에 올랐다.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가 주관하는 과학기술혁신대상은 올해로 20회째를 맞았다.

채티는 대화형 AI 서비스이다.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농식품 수출정보와 통계를 찾아 답변해 준다.

작년 12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채티는 해외시장 동향 및 비관세장벽 보고서 등도 다룬다. 약 8만 건의 농식품 수출정보 플랫폼(KATI) 자료 및 수출입 통계 데이터를 일상 언어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채티에는 대규모 언어모델(LLM)과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 어려운 전문용어 없이 일상어를 기반으로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정보 및 농식품 수출입 통계 관련해 질의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농식품 수출정보를 질문 중심으로 전환해, 농식품 수출기업의 정보 활용 진입장벽을 낮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신뢰도 높은 농식품 수출정보 내부 자료만을 활용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을 높인다. 아울러 생성형 AI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 내는 오류인 환각 현상(할루시네이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aT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채티의 기능을 한층 고도화하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상용 대규모 언어모델(LLM) 도입을 통한 검색정확도 향상, 광학문자인식(OCR) 기술 적용으로 도표·이미지 등 검색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선된 채티 서비스는 올해 11월 말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미국 관세정책 변동, 국가별 비관세장벽 강화 등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개별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수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채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실행전략을 제시하는 'K-푸드 수출 전문 AI 에이전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티는 농식품 수출정보 누리집의 '지능형검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수부, 해운·물류기업 북미 공략 지원

오늘 '해외물류시장 투자설명회'

통상 환경의 변화로 북미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현지 시장 공략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서울에서 '2026 해외물류시장 투자설명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북미 물류시장 변화에 따른 기업의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행사에서는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 재협상 및 원산지규정 강화가 국내 기업의 생산·운송 전략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인접 국가로 옮기는 이른바 '니어쇼어링' 흐름에 대응해 현지 물류 수요와 사업 기회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표에는 국내외 물류·산업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물류기업 FNS와 미국 국제정책 연구기관 윌슨센터는 북미 공급망 변화와 물류시장 대응 방안을 다룬다. 한화솔루션은 신산업 분야의 물류서비스 수요를 소개하고, 미국 물류기업 제이비헌트(JB Hunt)는 현지 화물운송시장 동향과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짚을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외 우수한식당' 대중음식점까지 확대

농식품부, 5년간 1000개소로 확대
내년까지 한식 디지털 라이브 마련

'해외 우수한식당 지정제' 범위가 기존 고급 식당 위주에서 대중적인 식당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지정 식당을 총 100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기존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개편을 통해 대중 한식당까지 넓게 포괄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제대로 된 한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지 기관 중심의 심사체계 및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을 10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외 종사자들이 쉽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한다. 조리 매뉴얼과 교육영상 등을 다국어로 제공하는 '한식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모바일 기반 '글로벌 한식당 아카데미'에서는 조리·위생·식재료 관리 등을 10~20분 내외의 짧은 콘텐츠로 제공한다. 교육 이수실적은 지정·갱신·등급 상향 평가와 연계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약국 입점 상품
체내 흡수율 높은
활성화 비타민 D3
BORYUNG
보령컨슈머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보령
비타민D
4000IU 츄어블
VITAMIN D 4000IU CHEWABLE
•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VITAMIN D
비타민D
100 μg / 일
1,000 mg x 60정(60 g)
오렌지맛
NAVER
보령 비타민D 4000IU 츄어블
지금바로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배추라멘·묵은지 파스타… 광주김치축제서 즐기는 미식 파티

23~25일 사흘간 광주청사 일대
김치명인 마스터 클래스 등 운영
우수 김치 10~30% 할인 판매도



광주김치축제 포스터.

전남광주의 음식문화를 나누고 통합과 상생의 가치를 전파하는 대한민국 대표 미식 축제, '제33회 광주김치축제'가 오는 23일 개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광주청사 일대에서 '압도하라! 김치파티'를 주제로 제33회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통과 현대, 세계의 맛을 아우르는 파격적인 프로그램과 대규모 할인 장터가 마련되어 방문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천인의 밥상'에는 지역 맛집과 개성 있는 외식업체 10곳이 참여한다. 기존의 틀을 깬 솥뚜껑 삼겹살과 보쌈은 물론, 배추라멘, 묵은지 오일파스타, 김치마요짜조 등 한식과 세계 각국의 조리법을 접목한 파격적인 김치 요리가 대거 선보인다.

아울러 23일과 24일 오후 6시 30분 야외음악당 주무대에서는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 공연이 어우러지는 '김치 파티'가 열려 가을 밤 축제의 열기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과 젊은 세대를 사로잡을 콘텐츠도 대폭 강화됐다. '김치명인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김치축제 대통령상 수상자가 직접 비법을 전수하며, '김치체험학교'와 어린이 전용 '김치 놀이터(김장오락실·김장운동회)'가 운영된다.

특히 MZ세대를 겨냥해 신설된 '오늘만 사는 김치' 코너에서는 불 배추김치와 한입 김치 등 이색 김치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김치를 소재로 한 개성 있는 굿즈를 판매하는 '김치가 최고심' 팝업스토어도 운영되어 젊은 층의 발길을 끌어당길 전망이다.

광주청사 1층 '김치 팝업 전시'에서는 김치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조명하며, 나주 영산강정원 일원에서 열리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와 연계해 남도음식명인의 작품 전시와 체험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김치 마켓'과 '농수산물 장터'도 규모가 커졌다. HACCP 인증 업체와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 김치 명인이 만든 우수 김치를 1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고춧가루, 젓갈, 김장 도구 등도 함께 구매할 수 있다. 현장에서 맛본 김치는 온라인 주문 및 전국 배송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보낼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원활한 행사를 위해 21일 오후 8시부터 25일 자정까지 광주청사 앞 사거리부터 한국은행 후문 삼거리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일부 버스 노선을 우회 운행한다. 축제 기간 주말에는 청사 주변 관공서와 상무지구 평화공원 지하주차장이 무료 개방된다.

전남광주 관계자에 다르면 "다양한 재료가 버무려져 하나의 깊은 맛을 내는 김치처럼, 전남광주도 하나로 힘을 모아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전남광주=양수녕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고흥군, 1.2조 '우주선철도' 구축 강조

"철도망 없어 기업 접근성 떨어져
우주산업 기반 확충에 맞춰 연계"

고흥군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흥 우주선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흥군은 지난 7일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과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면서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는 고흥의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부각됐다.

정부는 2031년까지 약 1조 6000억원을 투입해 고흥에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우주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이 집중되는 고흥에는 아직 철도망이 구축되지 않아 수도권과 주요 산업·연구 거점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련 기업과 연구 인력의 이동에도 상당한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주산업은 첨단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간 교류, 관련 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다.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 우주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광역교통망 확충이 늦어지면 국가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고흥군은 경전선 벌교역에서 고흥역을 거쳐 녹동역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46.8㎞, 사업비 약 1조 2000억원 규모의 '고흥 우주선철도' 건설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고흥 우주선철도가 건설되면 수도권과 주요 산업도시에서 고흥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우주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 인력의 이동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산업 기반 확충에 발맞춰 철도교통망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고흥 우주선철도를 이번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정부가 1조 6천억원 규모의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고흥 우주선철도는 단순한 지역 숙원사업을 넘어 국가 우주산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고흥 우주선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흥(전남광주)=양수녕 기자

경기도, 소방차량 19대 추가 도입

도비 22억3000만원 추가

경기도가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 따른 소방차량 구입 예산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도비 22억3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차량 19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가 올해 소방안전교부세를 352억원으로 확정해 당초 예상액 409억원보다 57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차량 구입 예산 48억 8000만원을 감액해야 했지만, 도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도비 22억30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에 따라 실제 감액 규모는 26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소방재난본부는 확보한 예산으로 굴절차 2대와 현장지휘차 3대 등 5대를 구입했으며, 물탱크차 등 14대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소방차량 구입 예산 26억 5000만원이 삭감돼 차량 25대를 구입하지 못하게 됐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소방안전교부세 감소로 예산이 줄었지만, 도비를 추가 투입해 총 19대의 소방차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소방장비를 보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방관들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김예원 기자 ywon@



경북도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은 지난 19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지금까지의 경제·행정 분야 교류에서 관광·청년·교육·문화까지 교류를 확대하기로 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경북-타이응우옌성, 관광·문화 교류 물꼬

경제·행정 넘어 협력 확대

경북도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은 지난 19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지금까지의 경제·행정 분야 교류에서 관광·청년·교육·문화까지 교류를 확대하기로 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농 꽝 녓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서명했다.

도와 타이응우옌성은 2005년 자매결연 이후 대표단 상호 방문과 새마을운동, 경제·행정 분야 교류를 이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타이응우옌성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태풍 피해 주민을 위한 위로성금 20억동(한화 1억10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6월말 기준 경북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 등록외국인은 약 3만명(도내 전체 등록외국인의 약 31%)이다. 국적별로 가장 많다.

타이응우옌성 대표단은 딘 꽝 뚜옌 타이응우옌성 당위원회 부서기 겸 조국전선위원회 위원장, 농 꽝 녓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인민위원회 13명과 응우옌 티 빈 여성기업인협회 회장 등 여성기업인협회 34명 등 모두 47명으로 구성됐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홍성 바비큐축제, 체류형 관광축제 거듭

이색 바비큐 시설 확대

충남 홍성군의 대표 미식축제인 '2026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이 한층 다양해진 바비큐 콘텐츠와 지역 관광·상권 연계 프로그램을 앞세워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홍성군은 오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나흘간 홍주성 일원에서 열리는 올해 축제를 단순한 먹거리 행사를 넘어 관광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체류형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색 바비큐 시설의 확대다. 지난해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었던 대관람차와 바이킹, 회전목마 형태의 바비큐 시설에 높이 5m가 넘는 대형 '홍성스카이타워' 2대가 새롭게 추가된다. 스카이타워에서는 홍성 한우를 활용한 케밥을 선보여 조리 과정 자체를 볼거리로 제공할 예정이다.

방문객 편의를 위해 바비큐 1존도 지난해보다 약 360평 확대하고 취식 공간을 확충한다.

/홍성(충남)=양대승 기자 zzica@

지역 이모저모

포항시

신규임용후보자 147명 발령

포항시는 지난 19일 포항시 평생학습원 대강당에서 신규임용후보자 147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발령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발령받은 실무수습원은 총 147명으로, 직렬별로는 ▲행정 68명 ▲사회복지 35명 ▲시설 10명 ▲공업 9명 ▲간호 5명 ▲세무 5명 ▲녹지 3명 ▲환경 3명 ▲전산 2명 ▲농업 2명 ▲운전 2명 ▲사서 1명 ▲보건 1명 ▲방송통신 1명이다.

이날 발령식은 발령장과 실무수습 신분증 수여를 시작으로 정책기획관의 시정 현황 및 정책 교육, 정보통신과의 실무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김해시

빈 부지 활용해 주차난 해소

김해시가 도심 곳곳의 유휴 공한지를 활용해 무료 주차 공간을 늘리고 있다.

시는 개발계획이 없거나 장기간 쓰이지 않은 땅을 임시주차장으로 만드는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조성한 공한지 주차장은 31개소, 895면이다. 시는 2026년 9월 기준 내외동, 진영읍, 삼계동, 장유1·2·3동 등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13개소, 362면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 사업은 새 부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만드는 방식과 달리 기존 유휴토지를 활용해 사업비와 조성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부산시

경제기관 3곳 새 리더십 출범

부산시는 지난 19일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경제진흥원 신임 기관장을 임명했다.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에는 심재운 부산상공회의소 본부장,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는 김현준 전 BNK 경남·울산 영업본부장, 부산경제진흥원 원장에는 황선웅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임기는 모두 2년이다.

세 기관장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산시의회 인사청문을 거쳤다. 이들은 지난달 29~30일 열린 청문회에서 모두 직무 수행에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산=이정민 기자 metrobusan6@

성남시

'산성대로 미션 투어' 운영

성남시가 관광 명소와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산성대로 미션 투어'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광객이 지역 내 주요 명소를 방문하고 소상공인 점포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소비 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성남(경기)=유진채 기자 yujin@

AI가 고르고 추천하는 쇼핑 시대 유통업계 'GEO' 핵심 경쟁력 부상

〈생성형 엔진 최적화〉

소비자, 생성형 AI 쇼핑 활용 증가
백화점 등 주요기업 GEO 전략 도입
기업-소비자 연결고리 약화 우려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쇼핑에 활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유통업계가 생성형 엔진 최적화(GEO)에 나서고 있다.

GEO(Generative Engine Optimization)는 생성형 AI가 이용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특정 브랜드나 콘텐츠가 검색·인용·추천될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을 뜻한다. 기존 검색엔진에서 웹사이트의 노출 순위를 높이는 검색엔진 최적화(SEO·Search Engine Optimization)에서 한발 더 나아간 개념이다.

20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유통업계는 생성형 AI를 새로운 상품 탐색 및 구매 경로로 인식하고 관련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GEO의 중요성은 에이전틱 커머스(Agentic Commerce) 시장의 성장과 함께 커지고 있다. 에이전틱 커머스는 AI 에이전트가 소비자를 대신해 상품 탐색·비교·결제 등을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가령 소비자가 '30대 여성이 결혼식에 입을 만한 옷 추천해 줘'라고 요청하면 생성형 AI는 질문의 맥락과 조건을 분석해 적합한 상품이나 브랜드를 추천한다. 이 과정에서 자사 상품과 브랜드가 AI의 답변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GEO의 핵심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업 프레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관련 시장 규모는 2025년 9억6224만달러에서 2026년 11억1139만달러로 성장하고, 2035년에는 39억4994만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5.17%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유통업계는 GEO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외국인 고객을 겨냥해 GEO 마케팅을 추진 중이다. 롯데벤처스의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신설된 '리테일 AI솔루션 T/F팀'과 협업해 웹페이지 정보를 AI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구조화하고, 매장 안내와 외국인 고객 혜택 등 주요 콘텐츠를 영어·일본어·중국어 등 4개 언어로 최적화한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가 여행이나 쇼핑 정보를 추천할 때 롯데백화점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GEO 전략 도입 이후 AI를 통한 고객 유입이 증가한 사례도 있다. CJ온스타일은 지난해부터 GEO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 결과, 올해 5월 챗GPT·제미나이 등 대화형 AI 플랫폼을 통한 앱·웹 유입이 1월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GEO 확대에는 역설도 존재한다. 생성형 AI를 통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지만, 동시에 기업이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접점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AI가 상품 탐색과 비교, 추천을 대신하면서 소비자가 브랜드의 자체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하지 않고도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거나 이를 재구매 유도 등 마케팅에 활용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이에 소비자와 AI 에이전트를 동시에 고려하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AI 서비스(AaaS) 기업 애피어는 "소비자에게는 브랜드 경험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AI가 자사 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추천할 수 있도록 제품 정보와 상세 사양, 재고, 리뷰 등을 구조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SIAL Paris 2026' 삼양식품 부스에서 현지 관람객이 기념품을 받고 있다. /삼양식품

삼양식품, '불닭·탱글' 소비자 접점 확대

시알 파리 2026

체험형 마케팅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

삼양식품이 세계 최대 식품박람회 중 하나인 'SIAL Paris 2026'에 처음 참가해 불닭과 파스타 브랜드 탱글을 앞세운 현지 마케팅에 나섰다. 신규 캐릭터를 활용한 전시 공간과 시식 행사 등을 통해 유럽 소비자와 바이어 접점을 넓히고 있다.

삼양식품은 프랑스 파리 노르 빌팽트 전시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메인 부스 '크레이브 랜드(CRAVE LAND)'와 비즈니스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은 박람회 개막 첫날인 현지시간 17일 전시장을 방문해 메인 부스와 비즈니스 라운지 등 독립 전시 공간을 둘러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행사장 전반을 살피며 글로벌 식품산업 동향도 확인했다.

메인 부스는 불닭 신규 캐릭터 페포(PEPPO) 조형물과 LED 스크린을 활용해 꾸몄다. 관람객이 QR코드로 참여하는 디지털 스탬프 투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미션을 완료한 관람객에게는 굿즈와 라면 제품 등을 제공한다.

시식 행사에서는 불닭 오리지널과 까르보 불닭, 탱글 파스타 3종을 선보인다. 탱글은 크리미 머쉬룸·갈릭 오일·불고기 등으로 구성했다. 현지 관람객들은 불닭의 매운맛과 까르보 불닭의 부드러운 매운맛에 관심을 보였으며, 유통 바이어도 탱글을 통해 삼양식품의 제품군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삼양식품은 체험형 마케팅을 통해 불닭과 탱글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유럽 시장 공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오리온, 실적개선 뚜렷… 내년 매출 4조 기대

3분기 주요법인 합산매출 10.8%↑
'해외 수요·오리지널 브랜드' 주효

오리온이 내수 소비 둔화 속에서도 해외 사업의 거침없는 성장과 장수 제품들의 유행 재점화에 힘입어 내년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 매출 4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고른 외형 성장과 더불어 장수 브랜드의 변신 등 최신 소비 트렌드를 입은 오리지널 브랜드들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결과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리온의 4개 주요 법인(한국·중국·베트남·러시아)의 올해 3분기 합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한 9203억 원, 영업이익은 6.7% 늘어난 1519억 원을 기록했다.

성장은 해외법인이 주도했다. 중국 법인 매출은 3840억 원(+13.8%), 영업이익은 732억 원(+9.3%)을 기록했고, 러시아 법인은 매출 1092억 원(+21.9%), 영업이익 173억 원(+47.9%)으로 수치상 가장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초코파이 수요 폭발로 상반기 평균 가동률이 116.68%에 달해 생산능력을 크게 뛰어넘었다. 베트남 법인 역시 매출 1306억 원(+8.3%)을 올렸고, 한국 법인은 매출 2965억 원(+4.9%)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 같은 해외 사업 성장의 뿌리에는 장수 브랜드의 전 세계적인 흥행이 자리 잡고 있다. 대표 제품인 '초코파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40억 개가 팔리며 누적 매출 8조 원을 넘겼다. 포카칩·스윙칩 등 생감자 스낵 역시 글로벌 누적 매출 4조 원을 돌파, 메가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다졌다.

최근에는 젊은 층의 소비 문화와 결합하며 브랜드에 활력이 더해지고 있다.

트렌드의 결합으로 '초코칩쿠키'는 우유나 요거트에 말아 먹는 '맛꾸(맛있게 꾸며 먹기)' 문화의 입소문을 타고 1~8월 매출이 전년 대비 약 30% 급증했다. 마이구미와 미쯔 역시 같은 흐름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신제품도 확장하고 있다. 출시 31년 만에 '미쯔 황치즈'를 선보였고, 그래놀라를 더한 '오!그래놀라 미쯔 스모어'를 출시했다. 소비자 재출시 요청이 쇄도했던 한정판 '말차 초코송이'는 상시 판매 제품으로 전환됐다. 앞서 선보인 '찰 초코파이', '바나나 초코파이' 등도 장수 브랜드의 외연을 넓힌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증권가에서는 오리온이 올해 연 매출 3조 7000억 원대를 기록한 뒤 내년 사상 첫 '4조 원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리온은 가파르게 늘어나는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글로벌 생산 인프라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국내에는 4600억 원을 투입해 2027년 완공 목표로 진천통합센터를 건설 중이다. 해외에서는 러시아 트베리 제2공장 신설에 2400억 원,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신공장 및 물류센터 구축에 약 2860억 원 등 총 8300억 원 이상을 대대적으로 투자한다. 글로벌 생산 인프라가 확충되면 성장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bhc, 베트남 진출 한 달 만에 2호점 오픈

호찌민 핵심상권 자리… LSR 형태 운영

치킨 브랜드 bhc가 베트남 진출 약 한 달 만에 2호점을 열고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조각 치킨과 밥을 함께 먹는 현지 식문화에 맞춰 메뉴를 구성하고, 쇼핑몰을 거점으로 현지 고객과 관광객 접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은 bhc가 지난 13일 베트남 호찌민의 프리미엄 쇼핑몰 '빈컴센터 랜드마크 81'에 2호점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 첫 매장을 연 데 이어 약 한 달 만에 추가 출점했다. 개점 행사에는 송호섭 다이닝브랜즈그룹 대표와 남화연 해외사업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2호점은 베트남 최고층 빌딩인 랜드마크 81에 들어섰다. 고급 주거단지와 호텔, 오피스 등이 인접한 상권으로, bhc는 이곳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 접점을 넓히는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bhc 베트남 2호점 매장 전경

매장은 약 126㎡ 규모로 42석을 갖췄으며, 간편한 식사가 가능한 제한 서비스 레스토랑(LSR) 형태로 운영된다.

메뉴는 현지 식문화와 한식 수요를 반영했다. 뿌링클·핫뿌링클·맛초킹 등 대표 치킨 6종을 닭다리와 날개, 순살 등 다양한 부위로 제공하고 흰쌀밥도 판매한다. 치즈볼과 감자튀김 등 사이드 메뉴에 더해 떡볶이와 로제 떡볶이, 라볶이, 김치볶음밥 등 한식 메뉴도 선보인다.

/신원선 기자

신라면세점, 글로벌 뷰티 브랜드 협업 확대

메이크업 쇼 등 콘텐츠 강화

신라면세점은 뷰티 매출이 개별여행객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글로벌 뷰티 브랜드들과 적극적인 협업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신라면세점 서울점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서울점 2층 행사장에서 총 6회에 걸쳐 '지방시 뷰티 메이크업 쇼'를 진행했다.

메이크업 쇼에서는 지방시 공식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시연과 함께 고객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참가 고객에게는 메이크업 쿠폰이 제공됐으며, 메이크업 쇼 관람 후에는 브랜드 카운터에서 터치업 서비스가 진행됐다. 또한 럭키드로우와 룰렛 이벤트를 통해 브랜드 제품을 증정했다.

이외에도 신라면세점은 오프라인 매장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브랜드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뷰티 콘텐츠를 지속 선보이고 있다.

신라면세점 서울점은 20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뷰티 브랜드 겔랑(GUERLAIN)과 함께 메이크업 쇼를 운영할 예정이다. 겔랑 메이크업 쇼는 3일간 하루 2회씩 총 6회 진행되며, 브랜드 전문 아티스트가 제안하는 메이크업 노하우와 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지그재그, '선물하기' 서비스 출시

지그재그는 약 900만 개 상품을 갖춘 '선물하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제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지그재그에서 판매 중인 패션, 뷰티, 라이프 카테고리 전 상품(해외 직구, 프리오더, 기간 판매 상품 등 일부 제외)을 모바일로 보낼 수 있게 됐다. 다양한 상품 중 지인의 취향에 맞는 선물을 고를 수 있다. 선물은 수신자의 지그재그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빠른 배송 서비스 '직진배송' 상품도 선물할 수 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자정 전까지 배송지를 입력하면 주말에도 다음 날 선물을 받아볼 수 있다.

홈 화면에 '선물하기 전용관'을 신설해 탐색 편의성도 높였다. 전용관은 아우터, 원피스, 뷰티, 홈데코, 취미 등 세부 카테고리와 가격대별로 상품을 구분했다.

/김서현 기자

이커머스는 거리로, 매장은 앱으로… 온·오프라인 무한경쟁

새로운 고객 접점, 판매 채널 확보
온라인 플랫폼, 팝업·매장 확대
롯데슈퍼 등 쿠팡이츠에 입점



지난 16~1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열린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의 팝업스토어에서 고객이 의류 태그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고 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지그재그 앱 내 해당 상품 페이지로 연결된다. /지그재그

이커머스 기업은 현실로 향하고 오프라인 유통기업은 온라인으로 향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상품을 직접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는 매장을 열고,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점포망과 배달 플랫폼을 결합해 즉시배송에 나서고 있다. 각자 부족했던 고객 접점을 보완하면서 온·오프라인을 연결하는 경쟁이 확산하고 있다.

20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커머스의 오프라인 진출과 전통 유통기업의 온라인 사업 확대가 맞물리면서 업태 간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지그재그는 지난 16~18일 서울 성수동에서 팝업스토어 '지그재그 익스프레스'를 운영했다.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쇼핑몰 50곳이 참여했다. 상품 태그의 QR코드를 앱 내 구매 페이지와 연결하고 전 상품에 '직진배송'을 적용해 현장 체험이 온라인 구매로 이어지도록 했다.

카카오스타일 관계자는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온라인 쇼핑몰과 고객의 접점을 마련하고자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W컨셉은 지난 16일 서울 한남동에 첫 단독 플래그십 스토어 'W한남'을 열었다. 총 4개 층, 영업면적 약 384㎡ 규모로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상품을 선보인다. 온라인에서 축적한 상품 선별 역량을 공간으로 구현하고, 향후 매장 내 라이브 촬영 등으로 고객과 브랜드를 연결할 계획이다.

컬리는 연내 서울 강남역 인근에 첫 상설 매장을 열어 신선식품의 상태와 화장품의 향·질감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에이블리도 성수동에 첫 오프라인 거점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성별·연령·취향 등 앱 데이터를 상품 진열과 쇼룸 구성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기존 점포를 온라인 주문을 처리하는 배송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편의점과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중심으로 성장한 퀵커머스 경쟁은 최근 백화점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롯데슈퍼는 지난 9월 전국 170여개 점포를 배송 거점으로 삼아 쿠팡이츠와 퀵커머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써 GS더프레시,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등 주요 SSM 4사가 모두 쿠팡이츠 '장보기·쇼핑'에 입점했다. 업체들은 자체 앱과 함께 배달의민족, 요기요, 네이버 등 외부 플랫폼을 활용해 판매 채널을 넓히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배달 서비스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CU와 GS25가 쿠팡이츠와 협업해 24시간 배달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세븐일레븐도 합류했다.

롯데백화점도 지난 9월부터 쿠팡이츠에 전용관을 열고 청량리점과 관악점에서 약 5개월간 퀵커머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식당가 메뉴와 식품·리빙·라이프스타일 상품 등을 배달하며 백화점 상품의 즉시배송 수요와 운영 가능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상호 진출의 배경에는 기존 업태의 한계와 소비 변화가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온라인 매출 비중은 2022년 53.0%에서 2026년 상반기 59.6%로 높아졌고, 오프라인은 47.0%에서 40.4%로 낮아졌다. 새벽배송과 퀵커머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커머스는 온라인 시장 내 경쟁 심화에, 오프라인 업체는 매출 비중 축소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채널 확대를 실제 구매와 수익으로 연결하는 것은 과제다. 이커머스는 현장 체험을 구매로 전환하고 배송 과정에서도 상품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외부 배송망을 활용하면서 상품 구색과 운영 효율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기존 매장을 도심형 물류거점(MFC)으로 활용할 수 있어 초기 투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같은 배달 플랫폼에 입점해 동일한 배송 인프라를 이용한다면 결국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와 경쟁력이 업체 간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삼바에피스, 브라질 희귀질환 시장 공략

브라질 정부와 10년간 단독 공급 계약
현지 파트너사에게 기술 이전 제공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중남미 최대 의약품 시장인 브라질 보건부에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SB12) 제품 공급을 위한 현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SB12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등의 희귀질환 치료제로, 2024년 12월 브라질 보건부 산하 의약품청(ANVISA)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브라질 에쿨리주맙 시장은 지난해 약 2500억원(1.7억 달러)에 달하며,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해당 시장에 10년간 제품 단독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브라질 보건부와의 생산적 개발 파트너십(PDP·Productive Development Partnership) 계약을 통해 현지 제약 회사인 바이오노비스(Bionovis), 국영 연구기관인 바이아파르마(Bahiafarma)와 파트너십을 맺고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입찰 결과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내년부터 10년간 브라질 정부 주도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해당 기간 동안 현지 파트너사에게 기술 이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9년부터 엔브렐 바이오시밀러(SB4), 2020년부터 허셉틴 바이오시밀러(SB3)를 PDP 계약을 통해 브라질에 공급해 왔으며, 누적 공급량 600만개를 돌파하며 제품 경쟁력 및 공급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PDP 계약을 통해 브라질에 공급하는 제품 수를 3종으로 확대하며, 중남미 최대 의약품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CS3팀장 정진한 상무는 "고품질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브라질 희귀질환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입찰을 통해 의약품 품질, 제조 및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우리의 우수성을 입증했으며, 브라질 바이오 제약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현지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셀트리온, 아시아·중남미 점유율 확대

일본서 램시마·허쥬마 선전

셀트리온이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와 중남미 주요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며 글로벌 사업 성장축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20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는 올해 7월 기준 일본에서 점유율 48%를 기록하며 오리지널 의약품을 제치고 인플릭시맙 처방 시장 1위에 올랐다.

항암제 제품군의 성과도 두드러진다. 일본에서 '허쥬마'는 78%, '베그젤마'는 64%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높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주력 제품들의 시장 경쟁력이 확인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램시마는 싱가포르 93%, 홍콩 84%, 태국 78%, 말레이시아 72%의 점유율로 각 시장에서 1위를 기록했다. '트룩시마' 역시 싱가포르 93%, 태국 78%의 점유율로 선두에 올랐으며, 허쥬마도 말레이시아 51%, 태국 42%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중남미에서도 셀트리온 주요 제품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 중남미 최대 제약 시장인 브라질에서는 램시마가 현지 사립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처방을 주도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램시마와 트룩시마가 각각 100%에 근접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에콰도르와 도미니카공화국, 파라과이 등 주요 국가에서도 셀트리온 제품군이 80%를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고수익 후속 제품의 출시 지역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스테키마' 정맥주사(IV) 제형을 출시하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 2027년에는 램시마SC 출시도 예정돼 있다.

/이세경 기자

조아제약, 생균·대사산물 더한 5세대 유산균

'데일리 프로바이오틱스 이뮨' 출시

조아제약이 생균의 장내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유산균 대사산물과 아연을 더해 장 건강부터 체내 정상 면역기능까지 관리하는 건강기능식품 '데일리 프로바이오틱스 이뮨'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35개 이상의 인체적용시험 데이터를 지닌 글로벌 원료사 듀폰 다니스코의 특허 균주 'L. acidophilus LA-14'를 포함해 총 17종의 혼합유산균과 아연을 담았다. 강한 내산성과 내담즙성을 갖춘 균주를 사용해 1일 1캡슐로 장까지 살아가 유해균을 억제하는 100억 CFU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제품 조성에서도 확실한 차별점을 뒀다. 생균과 유산균의 먹이뿐만 아니라 대사산물과 사균체까지 함께 배합한 '5세대 유산균' 포뮬러를 적용해 장내 정착 효율을 극대화했다. 미국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기업 US파마텍에서 생산을 맡았으며, 습기와 빛에 민감한 생균을 보호하기 위해 양면 알루미늄 개별 포장 기술을 채택했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데일리 프로바이오틱스 이뮨은 현대인의 고질적인 장 건강과 면역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원료부터 포장까지 밀도 있게 설계한 제품"이라며 "약 4개월 동안 복용할 수 있는 넉넉한 수량으로 구성해 꾸준한 건강관리를 바라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일동헬스케어

'퍼스트랩' 리브랜딩

일동제약그룹의 종합 헬스케어 계열사 일동헬스케어가 독자적인 프로바이오틱스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를 강화한다.

일동헬스케어는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 '퍼스트랩'을 재단장했다고 20일 밝혔다. 브랜드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로고와 제품 포장을 새롭게 선보인다. 깔끔한 서체와 기능성 화장품 특유의 세련되고 정제된 이미지가 특징이다. 또 하얀색을 메인 색상으로 설정하고 불필요한 꾸밈 요소 없이 여백을 살려 깨끗한 원료 속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실제로 퍼스트랩은 일동헬스케어의 헬스케어 전문 역량과 원료를 활용한 브랜드다. /이청하 기자

유한양행 발자취 담은 '100년사' 발간

통사·연구개발사·기념 화보집 3종

유일한 박사는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유한양행을 창립했고 유한양행은 민족 기업에서 R&D 중심 글로벌 제약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유한양행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1926년 고(故) 유일한 박사의 창업 이래 걸어온 한 세기의 도전과 윤리경영의 궤적을 정돈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의 도약 비전을 담은 '유한양행 100년사'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사는 통사, 연구개발(R&D)사, 기념 화보집 등 총 3권으로 구성됐다. 통사에서는 필수 의약품 보급에 앞장서 국민 건강 증진에 힘썼던 초창기 과정을 비롯해 모범적인 지배구조와 윤리 경영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제약 업계 최초 기업공개(IPO) 및 전문경영인 체제 정착, 기업이윤 사회 환원 등 변천사와 100가지 핵심 스토리를 객관적으로 수록했다. R&D사에서는 국산 신약의 이정표가 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를 집중 조명했다. /이청하 기자



'유한양행 100년사' /유한양행



조금 더. 해보고 싶어
조금 더. 잘하고 싶어
조금 더. 좋아지고 싶어
조금 더. 도전하고 싶어

이 작은 마음에
전부를 걸었던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

아직도
이 작은 마음에
전부를 걸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오늘도 조금 더”

We Do Technology | SK hynix

초심



하나은행, SK하이닉스 협력사에 7500억 지원

하나은행이 SK하이닉스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총 75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반도체 산업의 수출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중견 협력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나은행은 지난 19일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서 SK하이닉스, 한국무역보험공사, KB국민·신한·우리은행과 함께 '반도체 산업 수출공급망 강화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나은행



JB금융, AI 기업 업스테이지에 400억 투자

JB금융이 국내 인공지능(AI) 기업 업스테이지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전체 지분의 약 2%를 확보했다. JB금융그룹은 그룹 계열사인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3사가 업스테이지와 시리즈 C-2 라운드 400억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지난 9월 14일 양사가 체결한 '금융·AI 기술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MOU)'의 후속 조치다. /JB금융



삼천당제약, 임직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삼천당제약은 16일 서울 본사와 19일 경기 향남공장에서 '삼천당제약 임직원이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이 근무 중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 안에서 진행했다. 회사는 헌혈 후 회복을 위해 당일 조기 퇴근을 지원했다. /삼천당제약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진, 2억5000만원 기부 약정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수진 18명이 학부의 교육·연구 공간 마련을 위해 2억5000만원을 약정했다. 심리학과 뇌과학·인공지능(AI) 등을 연계한 연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다. 고려대는 지난 16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에서 '심리학부 건축기금 기부약정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려대학교

교촌치킨, 브랜드 서포터즈 'K-스피커스' 13기 모집

교촌치킨이 브랜드 서포터즈를 통해 젊은 소비자와의 소통을 확대한다. 신메뉴와 연말 캠페인 등을 주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를 제작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촌에프앤비는 오는 28일까지 공식 브랜드 서포터즈 'K-스피커스' 13기 참가자 60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2030세대와 대학생·대학원생으로, SNS 활동이나 사진·영상 편집,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 합격자는 다음 달 3일 발표하며, 선발된 참가자는 11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약 두 달간 활동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삼성, 파리 현대미술 안방에 펼친다… 아트 TV 콘텐츠 강화

아트 바젤 주요 작품 19점 공개
4K·무반사 기술로 원작 감동 구현
117개국서 명작 5000여점 제공

삼성전자가 파리에서 공개된 최신 현대미술을 안방 TV로 옮긴다. 현지 전시장을 찾지 않아도 회화의 색감부터 조형물의 입체감까지 고화질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 삼성전자는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이날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아트 바젤 파리 2026' 참가 갤러리의 주요 작품 19점을 삼성 아트 스토어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아트 바젤의 공식 디스플레이 파트너인 삼성전자는 홍콩과 스위스 바젤, 파리, 미국 마이애미 비치에서 열리는 행사 출품작을 삼성 아트 스토어에서 선보여 왔다. 이번에도 파리 행사와 연계한 컬렉션을 마련해 작품 감상 기회를 넓혔다.


엘렌 샤트베라슈빌리의 (Elene Shatberashvili)의 '양귀비 #4(Poppies #4)' 라이프스타일 이미지. /삼성전자

카림 크리파 아트 바젤 파리 디렉터는 "삼성 아트 스토어와의 협업을 통해 아트 페어가 끝난 후에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전 세계 관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번 컬렉션에는 일상 속 사물과 공간을 서로 다른 색채와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포함됐다. 대표작은 조지아 출신 현대미술가 엘렌 샤트베라슈빌리의 '양귀비 #4'와 벨기에 조형·설치 미술가 한스 옵 드 빅의 '더 라운지(흑백)'다.

'양귀비 #4'는 풍부한 색채로 일상 속 정물을 담아낸 작품이다. 반면 '더 라운지(흑백)'는 여러 소품을 배치한 실내 공간을 회색조로 표현해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삼성전자는 작품의 색감과 질감, 명암 등을 전달하기 위해 4K 화질과 무반사 기술을 적용했다. 화면 표면의 특수 코팅으로 외부 빛을 여러 방향으로 분산시켜 햇빛이나 실내조명에 따른 반사를 줄이는 방식이다. 이들 작품은 더 프레임 프로와 더 프레임, 마이크로 RGB, OLED(SH95) 등 삼성 아트 TV 전 라인업에서 감상할 수 있다.

한편 삼성 아트 스토어는 삼성 TV 전용 예술 작품 구독 서비스로 현재 117개국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다. 세계 주요 미술관과 작가들의 작품 5000여점을 4K 화질로 제공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G U+, 장기고객 초청 3배 늘린다

내년 고객 초청 행사 연 24회 운영
온·오프라인 병행해 참여 기회 확대

LG유플러스가 장기 가입자과 멤버십 고객을 위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LG유플러스는 장기고객 대상 초청 프로그램을 연간 24회로 늘린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운영 계획보다 3배 확대한 규모다. 앞서 경기도 광주시 화담숲에서 진행한 장기고객 초청행사에서 LG유플러스는 멤버십 운영 성과와 2027년도 고객 혜택 강화 계획을 공개했다.

최근 LG유플러스는 경험 중심의 혜택에 집중해왔다. 이는 회사 측이 직접 '심플랩'을 통한 고객 만족도 조사에 따른 것으로, 약 3만2000여건의 고객 의견 중 46.9%가 오래 이용한 만큼 특별한 대우를 원한다고 답했다.

올해는 화담숲을 비롯해 레고랜드 초청, 뮤지컬 전관 행사, 마라톤 프로그램 등 8차례에 걸쳐 체험형 프로그램을 선보여왔다. 고객 혜택은 비용이 아닌 관계를 위한 투자라는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내년에는 고객 초청 프로그램을 연 8회에서 24회로 3배 가량 확대한다. 또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지역에 관계없이 더 많은 고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멤버십 혜택도 패션·여행 등 고객의 관심사별 영역에 따라 한층 넓어진다. /조민선 기자 msjo@



지난 19일 경기도 광주시 화담숲에서 LG유플러스 장기고객을 대상으로 초청 행사가 열렸다. /LG유플러스

코웨이, 세계 4대 디자인상 '그랜드슬램'

日 굿 디자인 어워드서 본상 5개

코웨이가 '2026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Good Design Award)'에서 총 5개의 본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따라 코웨이는 올해 세계 4대 디자인상을 모두 석권하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20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번 어워드에서 '아이콘 정수기3', '스퀘어핏 공기청정기' 등 환경가전은 물론 슬립 및 힐링케어 브랜드 비렉스(BEREX)의 안마의자와 최근 새롭게 출시한 '제로 음식물처리기 미생물형'까지 폭넓은 카테고리에서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스퀘어핏 공기청정기' 시리즈는 iF, 레드닷, IDEA에 이어 이번 굿 디자인 어워드까지 연이어 수상하며, 세계 4대 디자인상을 모두 휩쓰는 영예를 안았다. /김승호 기자 bada@

동아제약, '초경의 날' 맞아 월경용품 나눔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건강 지원

동아제약이 10월 20일 '초경의 날'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들의 위생적이고 건강한 월경 생활을 지원한다.

동아제약은 경북 상주시와 서울 동대문구, 국제개발협력 비영리단체 지파운데이션을 통해 템포 생리대 3만 200팩과 여성청결제 '지노렉스'를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물품은 지역 내 저소득층 청소년과 경남 거제 수해 피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전달된다.

동아제약은 여성 월경용품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일상에서 건강 관리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정하 기자 mlee236@

한국타이어, '발롱도르' 3년째 공식 후원

26일 런던서 열리는 시상식 참여

한국타이어가 세계적인 축구 시상식 '발롱도르'와 3년 연속 동행하며 글로벌 축구 팬과의 접점을 넓힌다. 한국타이어 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는 오는 2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팔라디움 극장에서 열리는 '2026 발롱도르'에 3년 연속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20일 밝혔다.

발롱도르는 직전 시즌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축구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프랑스 축구 전문지 '프랑스 풋볼'이 1956년 제정했으며, 2024년부터 유럽축구연맹(UEFA)과 공동으로 시상하고 있다.

올해 시상식은 발롱도르 제정 7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런던에서 열린다. 초대 수상자인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 스탠리 매슈스를 기리는 의미도 담았다. 한국타이어는 시상식 레드카펫과 행사장 주요 공간에 글로벌 통합 브랜드 '한국(Hankook)'의 로고를 노출하고,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축구 팬을 위한 초청 행사도 진행한다. 오는 21일까지 '한국타이어 X 발롱도르' 행사 페이지에서 올해 남성 발롱도르 수상자를 예측해 투표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이승혁 기자 sh95@



강원도 홍천 소노펫클럽앤리조트 비발디파크에서 열린 'From 탐지견 To 반려견' 입양 연계 프로그램 행사에서 은퇴 검역탐지견 및 예비 입양 가족들과 더불어 트리니티항공, 소노펫,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트리니티항공

트리니티항공, 은퇴 탐지견 '견생 2막' 응원

소노펫·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

국가 검역 현장에서 임무를 마친 탐지견들이 예비 입양 가족과 1박 2일간 교감하며 반려견으로서의 새 출발을 준비했다.

트리니티항공은 소노펫,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지난 17~18일 강원 홍천 소노펫클럽앤리조트 비발디파크에서 입양 연계 프로그램 'From 탐지견 To 반려견'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사에는 올해 5월부터 진행한 사전 모집을 통해 선발된 입양 희망 가족과 입양 확정 가족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가 검역을 위해 활동한 은퇴 검역탐지견이 가정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예비 입양 가족에게 충분한 교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승혁 기자

인 사 ◆산업통상부 ◇국장급 전보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장 이규봉 ◇과장급 전보 △첨단반도체과장 문준선

부 음 ▲이상태(향년 88세)씨 별세, 이인희·이진해·이경해·이병희씨 부친상, 박명화·정원동(부산항만공사 경영부사장)씨 장인상, 나유정·김경연씨 시부상 = 20일 오전 3시58분, 수원 성빈센트병원 장례식장 3호실(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발인 22일 오전 11시30분, 010-6201-0734

청정원 30th ANNIVERSARY

DAESANG 대상주식회사

우리가 원하던 가득찬 오늘

오늘을 더 맛있게



청정원 모델
임윤아

일본의 전자산업과 아키하바라



김 양 팽 의
일본 이야기

일본의 지방과 지명 중에도 귀에 익은 곳이 몇 군데 있다. 수도 도쿄는 물론 오사카, 교토, 홋카이도 등이 그렇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특정 분야에 따라서 구체적인 지명이 널리 알려진 곳이 있다. 일본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람도 '아키하바라'는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도쿄에 있는 '아키하바라'가 유명한 이유는 그냥 관광지가 아니라 지금의 일본이 있게 만든 전자산업의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이다. 한때 우리나라에 "청계천에 가서 가게 몇 군데만 들르면 미사일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믿을 수 없는 소문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아키하바라가 그런 곳이었다.

아키하바라의 출발점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만들어진 암시장이다. 패전 직후 라디오 부품을 파는 노점들이 간다 일대로 몰려들었는데 1949년 연합군총사령부(GHQ)의 노점 정리령으로 이들이 아키하바라역 고가 아래로 옮겼다.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전기 상점들과 함께 규모가 커지면서 전자상가가 만들어졌고, 라디오를 직접 조립하던 시절이었으므로 부품을 구하려는 기술자와 학생들이 아키하바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일본이 고도 성장기로 접어들면서 아키하바라는 일본 가전의 쇼윈도로 변모했다. 1950년대 후반, 일본에는 흑백 TV·세탁기·냉장고가 '3종의 신기(神器)'로 불리며 가정에 보급되었고 1960년대 후반에는 컬러TV·에어컨·자동차가 '3C'로 뒤를 이었다. 이 시절에는 혼수 가전을 장만하기 위해 아키하바라를 찾는 신혼부부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1979년 소니의 워크맨이 등장하고 일본의 가전이 전 세계 시장을 점령하던 1980년대 아키하바라는 '세계 최대의 전자상가'가 되었다. PC가 등장한 이후에도 그 명성은 이어졌다. 한국에 아키하바라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시점은 아마도 1980년대 후반일 것이다. 1980년대 한국의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많은 여행객이 아키하바라를 방문해 카메라와 전기밥솥 등 가전제품을 직접 구입해 오면서 일본 관광여행의 필수 코스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아키하바라의 명성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야마다전기(ヤマダ電機)'와 같은 교외 대형 양판점의 등장과 인터넷 쇼핑몰의 성장으로 인해 가전 유통 시장이 빠르게 변했고, 일본의 전자기업들은 한국, 대만,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또한 산요, 샤프, 도시바와 같은 대표 전자기업들이 크게 흔들렸고 주목받던 소니 역시 2014년 PC 사업에서 철수했다. 그리고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메이드 인 재팬' 가전 의 일부가 외국 기업에 매각되었다.

이렇게 일본 가전사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유통 환경이 달라지면서 아키하바라도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거리를 대표하던 전자 부품 상점들이 간판을 내리면서 빈자리를 채운 것은 애니메이션과 게임, 피규어 상점 그리고 메이드 카페였다. 그렇게 아키하바라는 전자제품의 거리를 넘어, 지금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은 '오타쿠'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아키하바라는 이제 외국인들이 흥미를 가지고 방문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잡은 것이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전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기계를 뜯어보고 조립하던 마니아들의 관심이 PC와 게임으로, 다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로 옮겨 갔을 뿐 시대에 따라 이 거리를 찾는 사람들과 그들이 몰두하는 대상이 달라진 것이다.

아키하바라의 변화는 일본 산업과 사회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이제 시작



기자 수첩
나 유 리
〈금융부〉

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어디로 갈까. 한 번 외부로 빠져나간 정보가 누구의 손에 들어가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추적하기란 쉽지 않다. 여러 경로를 거쳐 불법 거래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등 금융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은행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바라보며 우려스러운 대목도 여기에 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은행들은 보안체계 강화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 금전적 피해가 확인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입장도 내놓는다. 그러나 고객이 궁금한 것은 자신의 정보가 어디로 흘러갔고, 앞으로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답이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은 피해가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름과 연락처, 금융거래 관련 정보 등이 범죄 조직에 넘어가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문제는 피해가 뒤늦게 발생했을 때다. 수개월 또는 수년이 지난 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과거 은행에서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 여러 경로에서 유출된 정보가 뒤섞여 유통되는 상황에서 피해 원인과 책임을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고객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다.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금융거래를 점검할 수는 있지만, 이미 외부로 유출된 이름과 연락처 등을 되돌릴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은행의 보안망이 뚫린 대가는 고객이 장기간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정작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은행은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치고, 고객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2차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다.

은행권은 매년 정보보호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모의해킹과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그럼에도 사고가 반복된다면 보안투자의 실효성을 되짚어봐야 한다. 금융당국 역시 유출 규모 파악에 그치지 않고 2차 피해 예방과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은 개인정보도 함께 맡긴다. 은행이 지켜야 할 것은 계좌에 들어 있는 돈만이 아니다. 고객의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 역시 금융기관의 기본적인 책임이다. 은행의 사과는 하루면 끝날지 몰라도, 유출된 개인정보가 고객을 위협하는 시간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yul115@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1일 (음 9월 11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무엇을 해도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60년생** 문제가 쌓이게 됩니다. **72년생**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지 마세요. **84년생** 연애를 할 때는 심사 숙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49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자중하세요. **61년생** 욕망을 조금만 더 참으세요. **73년생** 이 달 말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85년생** 친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50년생 객지에서 친구를 만나 삶에 의욕이 생깁니다. **62년생** 원대한 소원이라도 쉽사리 성취됩니다. **74년생** 금전관계로 피곤합니다. **86년생** 너무나 좋은 기운이 귀하를 맴돌고 있습니다.

51년생 늦바람이 더 무섭습니다. **63년생** 새로운 인연자가 생기어 사랑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75년생**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87년생** 정열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52년생 지금 당장의 일만 신경쓰는게 좋습니다. **64년생** 소화기관쪽에 질병을 유의하세요. **76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아량과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88년생** 이상형을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53년생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 받을 수 있습니다. **65년생**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 밀고 나가세요. **77년생**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89년생**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세요.

54년생 여행운과 국외로 나갈 운이 많습니다. **66년생**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세요. **78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90년생** 내짝은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55년생 자신을 믿고 망설임 없이 행동하세요. **67년생** 지나친 생각은 금물이니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79년생** 애정운은 하락세입니다. **91년생** 지금껏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옵니다.

56년생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68년생**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릴 것입니다. **80년생** 행운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92년생** 변화와 이동수가 많아 바쁜 한달을 보낼 것입니다.

57년생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69년생**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81년생** 금전운은 지출이 많으니 관리에 신경 쓰세요. **93년생** 친절한 전화 한통화가 애인 사이를 발전시켜 줄것입니다.

58년생 드디어 당신의 계절이 왔습니다. **70년생** 혼자라고 느껴져도 너무 외로워 하지 마세요. **82년생** 언제나 처럼 주변에 활기를 넣어주세요. **94년생** 주변 사람의 의견에 좌지우지 되지 마세요.

59년생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71년생** 모든 모임에는 꼭 참석하세요. **83년생** 동쪽에서새 귀인을 만나며, 목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95년생** 금전운이 길합니다.



김상회의 四季

삼두일족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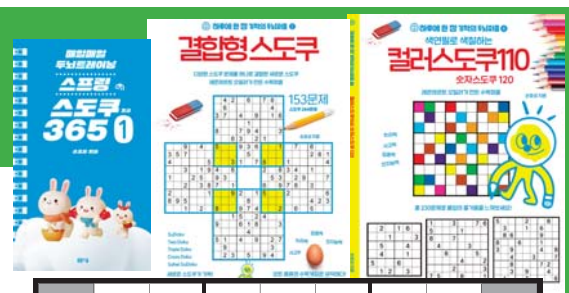
맹금류로서 용맹하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수리의 대표 명사로서 독수리를 떠올리지만 의외로 독수리는 수리 종류로서 그 종류가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민속적으로 독수리보다는 매가 더 친숙하다. 독수리과는 아니지만 매과에 속하는 중 맹금류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매를 사냥에 이용하였다. 조선의 태종도 매사냥을 즐겼으며 그보다 더 앞선 신라 시대 때의 진평왕 역시 매사냥을 즐겼다는 기록도 삼국사기에 보인다. 보통 삼재가 들어오면 매 그림으로 부적을 써서 삼재의 액운을 막고자 하였는데, 부적에 그려진 매 그림을 보자면 머리가 셋이고 발이 하나인 삼두일족매(三頭一足應)가 그려진 삼재부적(三災符籍)이 그것이다.

더 강한 맹금류인 독수리보다 매가 재앙을 막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늘의 제왕은 단연코 독수리를 떠올리지만 의외로 단순히 힘이 세다 해서 무조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생각이다. 사실 크기와 힘 면에서는 매가 독수리보다는 한 수 아래지만 최고의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속도와 민첩함에 있다. 특히 미국의 국조인 흰머리수리는 날개를 펼치면 사람 키보다 훨씬 넓은 데다가 발톱도 굵고 부리도 엄청 강해서 높은 하늘을 천천히 돌면서 넓은 지역을 한눈에 살피는 모습은 진정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그러나 매는 몸집은 독수리보다 훨씬 작지만, 속도만큼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한다. 특히 사냥의 고수로 알려진 송골매의 경우, 먹이를 향해 급강하할 때는 시속 300㎞가 넘는 속도를 낸다고 알려져 지구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라는 말까지 있다. 게다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순으로 방향을 바꾸고 공중에서 목표를 정확하게 노리는 능력이 대단하여 매는 빠른 판단과 민첩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평가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한 힘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4			9
			9					6
	1				3			
				2			5	
	7						2	
	3			8				
			1				4	
4					7			
1			6				7	

				8		1		3
	1	8						
					7			
		2				4		
8			2		6			5
		3				7		
			8					
						6	5	
1		4		7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7	3	2	4	6	9	5	1
5	6	1	7	9	8	3	2	4
2	4	9	5	1	3	8	6	7
7	9	6	1	8	4	5	3	2
1	2	8	4	6	5	7	9	3
9	3	2	8	7	1	4	6	5
6	8	7	3	5	9	2	1	4
4	5	6	9	2	7	1	8	6
3	1	5	6	3	2	6	4	9

2	9	8	3	7	5	4	6	1
7	5	6	1	2	4	9	8	3
1	4	3	9	6	8	7	5	2
6	1	4	8	9	7	2	3	5
5	2	7	6	4	3	1	9	8
8	3	9	5	1	2	6	7	4
9	6	1	2	3	4	5	8	7
3	8	5	4	7	6	9	1	2
4	7	2	7	8	9	3	2	6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17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2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수능 앞두고 'AI 안경' 비상… 현장 감독만으론 역부족

논술고사서 AI 안경 적발 잇따라
교육부·평가원, 지침·제재 마련
단순 소지만으로도 수능 무효 처리
교사 노조, 감독 교사 보호대책 요구


AI에 의해 생성된 시험장과 스마트 안경 이미지.

대입 논술고사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 감독에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 당국이 AI 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하고 적발 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현장 감독만으로 신종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사 노조도 감독관에게 추가 업무를 맡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계열 논술고사와 10일 연세대 자연·통합계열 논술고사에서 AI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됐다. 시험 전 확인 과정에서는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시험 도중 안경을 바꿔 쓴 정황도 드러났다.

AI 안경은 카메라와 통신 기능 등을 활용해 촬영한 정보를 외부로 전송하거나 AI가 분석한 답을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일반 안경과 형태가 비슷해 외관만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교육 당국은 제재 기준과 현장 대응 지침을 정비했다.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안경을 직접 착용하며 신종 기기가 시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연도뿐 아니라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14일 교육위 국감에서 시도교육청 차원의 스마트 안경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AI 안경을 명시하고, 감독관이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의 사항 책자와 식별 안내자료, 교육용 동영상도 제작했다. 스마트 렌즈 등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15일 공개한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에는 스마트 안경 관련 제재와 감독관의 확인 절차가 담겼다. AI 안경 착용이 적발되면, 수능을 무효 처리하고 다음 해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단순 소지만으로도 무효 처리될 수 있고,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할 수도 있다.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하면 수험생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도 지침을 전달해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 참고하도록 했다. 전파탐지기 활용 방안도 검토됐지만, 올해 수능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규정과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만으로 현장의 부담까지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I 안경을 일반 안경과 구분하는 과정에서 감독관의 육안 확인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데다, 수험생의 항의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 기준도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일률적으로 의심할 경우 시력 교정이 필요한 응시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교사 노조는 부정행위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감독관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5일 교육부와 평가원,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수능 감독 업무 개선을 요구하는 전국 교사 서명운동에 나섰다. AI 기기 확인에 필요한 시간과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의심 상황에서의 판단 절차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라는 요구다. 아울러 정당한 감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법적 분쟁에 대해서도 기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사노조도 AI 안경을 육안으로 식별하는 책임을 감독 교사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탐지 장비와 명확한 판별 기준, 감독 교사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감독관의 확인 항목만 늘리는 대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지침과 인력·장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까지 남은 기간은 한 달이다. 감독관에게 기기 식별과 부정행위 판단을 맡기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장 대응에 필요한 기준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교육 당국의 책임이 남아 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절대평가 영어, 국어·수학보다 지역 격차 커

상대평가 과목보다 상위권 늘었지만
최고 지역,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
수학 절대평가 땐 다른 양상 전망도

대학수학능력평가의 절대평가 전환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수능 상위권의 지역 간 격차는 국어·수학보다 영어에서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5년 연속 1위를 지킨 가운데 대구가 밀려나고 경기와 세종이 상위권에 진입하는 등 지역별 입시 지형에도 변화가 포착됐다.

20일 종로학원은 2022~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3 성적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2등급 이내 비율의 최고·최저 지역 간 격차는 5년 내내 영어가 국어·수학보다 컸다.

격차는 2022학년도 영어 16.0%포인트(p)·수학 11.0%p·국어 7.4%p 순이었다. 2023학년도에도 영어가 16.6%p로, 수학 10.7%p·국어 7.4%p를 웃돌았다. 2024학년도에는 영어 15.6%p, 수학 11.0%p, 국어 8.2%p였고, 2025학년도에는 각각 14.9%p, 10.2%p, 8.5%p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영어 격차가 13.8%p로 가장 컸으며, 수학 12.0%p, 국어 9.2%p가 뒤를 이었다.

영어는 2023학년도 이후 3년 연속 격차가 줄었지만, 국어는 2022학년도 7.4%p에서 지난해 9.2%p로 확대됐다. 수학은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해 최근 5년 중 가장 큰 격차를 기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절대평가인 영어는 상대평가 과목보다 최고 지역과 최저 지역 모두 상위권 학생 비율이 늘어나지만, 최고 지역이 늘어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매우 어렵게 출제될 때는 오히려 지역 간 격차가 좁혀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추이는 수능 평가 방식 개편 논의와도 맞물린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통합형 체제가 적용된다. 다만 국어와 수학의 절대평가 전환은 국가교육위원회 등이 아직 논의 중이다.

임 대표는 수학이 절대평가로 바뀔 경우 영어와는 다른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학습 부담이 높은 수학이 영어처럼 절대평가로 전환될 경우 영어와는 상당히 다른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5년간 수학의 상위권 비율 격차가 국어보다 꾸준히 컸던 만큼, 평가 방식이 바뀌더라도 영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수정 기자

수능 당일 지하철 늘리고 시험장 차량 통제

교육부 '수능 당일 지원 대책' 발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수도권 지하철 운행이 늘고 시험장 주변 차량 진입이 제한된다.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는 항공기 이착륙과 군사훈련을 조정하는 등 정부가 교통 혼잡과 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20일 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다음 달 19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2개 시험장에서 실시한다. 응시 예정자는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줄었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등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의 시험 종료 시각은 오후 9시 48분이다.

교통 혼잡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하철은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한다.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도 제한한다. 수능 당일 자가용을 이용하는 수험생도 해당 지점에서 내려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

소음 관리 대책도 내놨다.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5분까지 항공기·헬리콥터의 이착륙 시간을 조정한다. 같은 시간 동안포 사격과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도 중단한다. /김수정 기자

아태지역 교장·교감, 교육현장 변화·대응

교육부 'APEC 스쿨리더십 프로그램'

1인공지능(AI)이 학교 수업과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장·교감들이 모여 교육 현장의 변화와 대응 방안을 살핀다.

교육부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202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스쿨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10개 회원 경제체의 초중등학교 교장·교감 등 52명(국내 28명·해외 24명)이 참여한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AI) 시대, 세계와 연결된 학교를 이끄는 혁신적 리더십'을 주제로 ▲AI·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 ▲학교 운영자의 역할 ▲국가 간 교육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2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국제 미래 사회에서 학교 경영자가 맡을 역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다. 이날 참가자들은 서울여자중학교와 서울 에듀테크 소프트랩에 방문해 교육 현장의 AI 활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22일에는 국내외 학교 관계자들의 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오전에는 'A·I 디지털 전환을 통한 교육혁신'을 주제로, 오후에는 '상호 연결 시대의 국제 교육협력'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 날에는 분임별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학교 간 교류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연수 이후인 11월에도 온라인 공동 워크숍을 열어 참가자 간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수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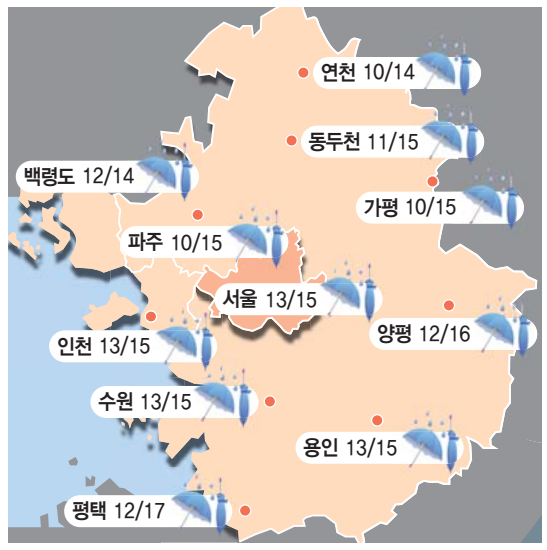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6:46 | 해짐 / 17:47

10월 21일 (水)
음력 : 9월 11일

수도권 날씨
13~15℃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이란 군사력 궤멸…당장 철수 가능" /사진 뉴시스

▲佛·伊·알바니아까지…유럽 전역 물가고 주택난 으로 폭동의 불길

▲러 공습에 키이우 일부 단수…겨울 정전 길어지면 오수 범람 우려

▲노재헌 주중대사 "한반도 정세 주시…中과 소통 강화"

▲강제동원 피해 유족, '사도광산 운영' 日전범기업 손배소 2심도 승소

▲카타르 "이란전 에너지 여파 더 남았다"…호르무즈 불안 경고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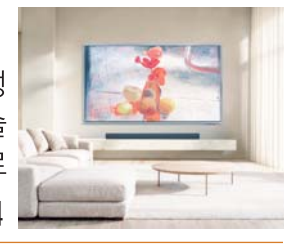
metro® Life

제6017호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이커머스는 거리로
매장은 온라인으로
온·오프 경쟁 확산
L2

삼성
파리 현대미술
안방 TV로
L4





'노화 시계' 거꾸로 돌린다… 역노화 기술로 패러다임 대전환

글로벌 헬스케어 '역노화' 급부상
노화세포 제거·오가노이드 장기 등
자본·기술 집약 차세대 전략 조망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노화를 피할 수 없는 현상이 아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재정의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세포 리프로그래밍, 노화 세포의 제거, 오가노이드를 기반으로 한 장기 재생 등 첨단 바이오 기술이 융합되며 역노화 시장은 자본과 기술이 집중되는 매가트렌드로 급부상했다.

이런 가운데 메트로경제와 메트로신문은 2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노화를 되돌리다 : 역노화 기술이 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2026 제약·바이오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수명 연장(Anti-aging)을 넘어 세포와 조직의 생물학적 시계를 되돌려 건강 수명을 극대화하는 '역노화(Reverse-aging)' 기술의 최신 연구개발(R&D) 트렌드를 짚어보고, 이를 통한 제약·바이오 산업의 차세대 성장 전략을 심층 조망할 예정이다.

기조강연은 권은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장이 맡는다. '항노화 연구의 동향과 미래전망'을 주제로 국내외 역노화 연구 최전선의 흐름을 짚어보고 생태계 전환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계와 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세포 리프로그래밍, 오가노이드 기술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를 이어간다.

전해민 한미약품 미래성장부문 융합센터 센터장이 첫 강연자로 '노화의 이해 그리고 미래 전략'을 공개한다. 전 센터장은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비만치료제를 중심으로 항노화·역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경아 메디스팬 대표는 '노화 치료의 새로운 표적, 면역 리프로프래밍'을 주제로 메디스팬이 가진 플랫폼의 파이프라인을 공개한다. 메디스팬은 선천면역세포의 에너지 이용과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대사·후성유전학적 변화를 통해, 선천면역기억을 재설정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이어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가 '3차원 미니장기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항노화 물질 개발 전략'을 주제로, 피부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탈모, 새치 등을 되돌리는 역노화 전략을 공개한다.

마지막으로 양재현 카이스트(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가 '세포의 정보로 이해하는 노화와 역노화'를 주제로 단상에 오른다. 세포에는 각자의 역할을 알려주는 정보가 담겨 있는데 이 정보를 바로잡아 세포를 다시 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역노화 패러다임 전환기에 서 국내 바이오 기업, 연구진이 확보해야 할 핵심 경쟁력과 상용화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6 제약·바이오 포럼 프로그램

시간	구분	프로그램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14:00~14:20	축 사	**백종헌** 국회의원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근부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14:20~15:00	기조강연	**권은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장 :항노화 연구의 동향과 미래 전망-노화 진단 및 치료
15:00~15:30	강연	**전해민** 한미약품 미래성장부문 융합센터 센터장 : 노화의 이해 그리고 미래 전략
15:30~16:00		**조경아** 메디스팬 대표 : 노화 치료의 새로운 표적, 면역 리프로그래밍
16:00~16:30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3차원 미니장기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항노화 물질 개발 전략
16:30~17:00		**양재현**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 : 세포의 정보로 이해하는 노화와 역노화

권 은 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장



권은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 단장은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를 거쳐, 생명과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6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 의대에서 박사후연구원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노화 연구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2012년부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연구센터에서 20년째 노화 연구를 수행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노화 분자 기전 및 노인성 질환 극복 연구 등이다.

노화 연구의 전문성, 조직 내에서 리더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아 2019년 노화제어 전문연구단 단장을 수행했고, 후학 양성에도 관심이 많아 2021년부터 국가연구소 대학교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를 맡고 있으며, 한국노화학회 부회장, 연구재단 국책바이오 전문위원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기초연구진흥 유공자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전 해 민
한미약품 미래성장부문 융합센터장



전해민 한미약품 미래성장부문 융합센터장(상무)은 기초 연구와 임상 현장을 아우르는 중개의학연구 및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분야 전문가다. 전 상무는 임상 현장에서 신경외과를 전공하고 카이스트(KAIST)에서 의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의사 과학자'이기도 하다. 바이오 벤처 소바젠의 Neuro-onco팀장 책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미약품에서 미래성장부문 융합센터를 이끌고 있으며 대한신경외과학회 정회원으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전 상무는 중개연구, 항노화, 인공지능 신약개발을 핵심 성장 축으로 삼고 독보적인 R&D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신약개발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도구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등 혁신 가치 창출에 주력한다. 그 결과, 한미약품의 자체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인 'H.A.R.P(Hanmi AI-driven Research Platform)' 구축이라는 결실도 거뒀다.

조 경 아
메디스팬 대표



조경아 대표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교수이자 메디스팬 창업자·대표다. 면역 노화와 세포 노화를 연구해왔으며, 현재 선천면역기억과 대사·후성유전학적 조절을 통한 면역 리프로그래밍을 노화와 질환 치료제 개발로 연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002년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생화학·분자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6년까지 같은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했다. 2006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로 임용됐으며, 2010년 부교수를 거쳐 2015년부터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학장을역임했다.

2020년 메디스팬을 창업해 기초 연구 성과를 면역 리프로그래밍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플랫폼의 첫 파이프라인 MSP-102를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와 임상 진입 준비를 추진하며, 후속 후보물질을 통해 개발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유 종 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국내 1호 오가노이드(장기유사체) 전문 기업을 설립한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오가노이드 기술 상용화에 앞장서 온 의료인이자 생명공학 전문가다.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차그룹 오가노이드센터 센터장과 차바이오텍의 학본부장을 거쳤다. 이후 오가노이드학회 총무이사 겸 산학협력이사로 재직, 2015년부터는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2017년 재생 치료제 조성 개발 특허 출원, 2018년 치료제 동결 보관법 개발 및 이식 재료 개발 등 오가노이드 관련 15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20여 편의 논문을 냈다. 사업 성과로는 ▲장 및 침샘 오가노이드 치료제 CMC 개발 및 비임상 개발 ▲오가노이드 전용 GMP구축 ▲오가노이드 관련 약물평가 세계 최초 상용화 성공 ▲차의과대로부터 4건의 재생치료제 기술 도입 등이 있다.

양 재 현
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



양재현 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생명약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후성유전학 및 유전자 발현 조절 분야 연구의 기틀을 다졌다. 이후 세계적인 연구 기관인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세포 노화의 분자적 원인과 뇌 노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첨단 역노화 연구에 집중해 왔다.

현재는 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이자 줄기세포 및 재생생물학 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노화 리프로그래밍 연구실'을 이끌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후성유전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세포와 뇌의 노화 원인을 밝히고, 무너진 세포 정체성을 회복시켜 뇌 기능을 안전하게 되돌리는 '역노화(Reverse Aging)' 분자 기전 및 치료 기술 개발이다.

세계 노화·역노화 연구 분야를 선도하는 신진 연구자로서,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혁신적인 과학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메트로 한줄뉴스



▲'승률 98.4%' 여제 안세영, 프랑스오픈서 3연패 도전
▲'손흥민 친정팀' 토트넘, EPL 개막 7경기 만에 감격의 첫 승 /사진 뉴시스

▲'대표팀 무단 이탈' 호날두, 출전정지 30일·제재금 38만원
▲KT 정규리그 우승 이끈 힐리어드, 9~10월 KBO리그 월간 MVP 선정

▲인구 1만 도시 피작에 2만명 몰렸다…'프랑스 한글전'
▲내년 6월, 마지막 탄광촌 문 닫는다… '탄광촌의 생활문화' 발간